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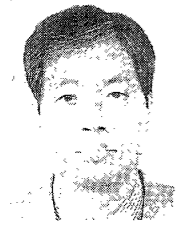
東大新聞

1997년(음력 2541년) 11월 10일(월요일) 제 1235호 주간 / 1964.1.1 등록번호 다-10/발행인 송석구 / 편집인 겸 주간 정태섭 / 부주간 고창택 / 편집국장 이익성 / 편집장 김기영 / 100-715 서울시 중구 필동 3가 26 (02) 260-3491 ~ 2 FAX (02) 279-1270 / 780-714 경복경시 석정동 707 (0561) 770-2057

김주일이언

만약 다소(多少) 들은 것이 있다 하여 스스로 큰 채하고 남에게 교만하면 이는 마치 소금이 촛불을 집어서 촛불이 그를 비쳐도 스스로는 밝지 못하고 같다.
법규경·다우훈 58절

제9회 '이중섭미술상' 오원배교수 최연소수상
시상식 11일, 조선일보미술관



조선일보사가 지난 89년에 제정한 '이중섭미술상'의 올해 수상자로 오원배(미술학부)교수가 선정되었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이번 시상식은 오고수에게 최연소 수상작가라는 영예를 더불어 안겨 주었다. 시상식은 내일(11일) 오후 4시 조선일보미술관에서 열리며 제8회 수상자인 윤석남씨의 수상기념식과 함께 진행된다. 지난 89년 '올해의 젊은 작가'로 선정된 오고수는 조선일보미술관에서 초대전을 가졌으며 이중섭 화백과 생전에 친분이 두터웠던 원로 재물작가 함화백에게 '이중섭화백의 작가정신과 예술혼을 접했다'고 오고수는 "믿고 따르던 제자들과 학교 측의 지원에 힘입어 학교의 명예와 위상을 한단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돼 기쁘다. 실존과 소의를 주제로 끊임없이 변화와 모색했던 작품활동을 심사위원들이 높이 평가한 것 같다"고 수상소감을 말했다.

행정고시 5명 최종합격

제41회 행정고등고시에 본교 출신 2차 합격자 5명이 전원 최종합격했다. 이번 행정고시 최종 합격자는 △김승현(법88졸)=검찰사무 △박인규(행정91졸)=일반행정 △김정욱(행정92졸)=일반행정 △이정순(회계92졸)=재정 △이창환(경영97졸)=보조감찰분야 총 5명이다. 한편, 사법고시 2차 합격자 발표가 오는 21일 있을 예정이다.

김중욱처장 공로표창 수상

김중욱 관리처장이 지난 6일 이사장실에서 제 88호 공로표창을 받았다. 69년 11월 1일부터 본교에 근무해온 김중욱씨는 교육환경과 시설개선에 노력하며 '96년 대학종합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는 데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학교재산관리에도 공헌을 한 바 있다. 이에 법안사무처(처장=송재운·국민윤리처)안재봉 과장은 "그동안 이사회에서 표창한 사례가 드물었던 것을 고려하면 이번 표창은 매우 뜻깊은 것이며 이런 관심은 직원들의 사기 고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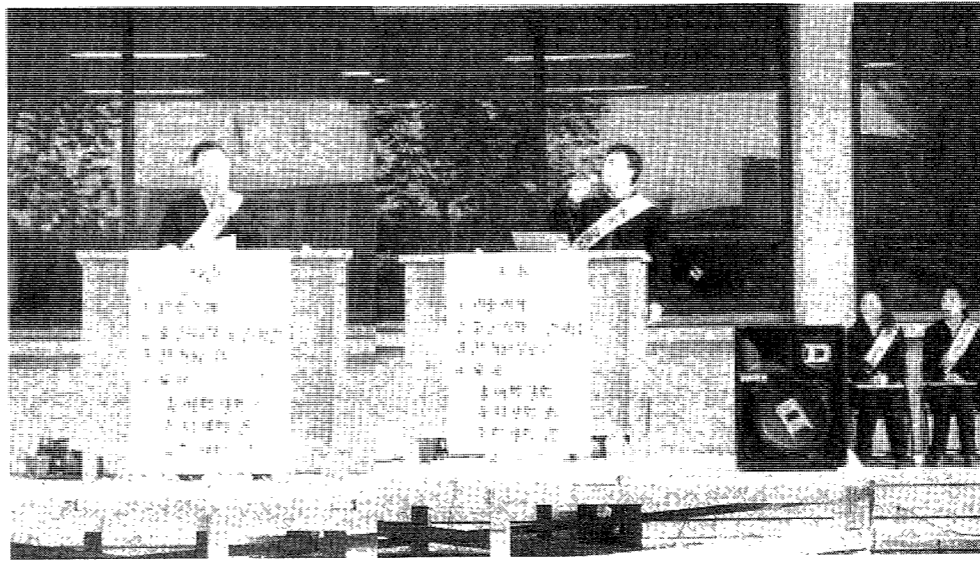
1차유세 '사수' 나 '탈퇴' 나 공방

총학후보 갑 "한총련 사수 혁신"... 후보 을 "탈퇴 통한 새로운 학생회 건설"

2차유세 11일 동국관앞·정책토론회 13일 불상앞

제 30대 총학생회 및 제 13대 총여학생회 선거의 1차 합동유세가 지난 7일 오후 1시 2백여명의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도서관 앞에서 열렸다. 이번 유세는 △민중의례 △중선위원장 인사말 △선거일정공고 △총여학생회 임후보자 △총학생회 임후보자 유세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총여학생회 정·부회장 후보 이경원(철3), 이가양(인문2)씨는 "대학은 결코 여성의 안전지대가 아니며 학내 성폭력에 대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변했으며 "여성취업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어 두번째로 연단에 오른 총학생회 정·부회장 선거 유후보 이항수(정외3), 김준환(건축공3)씨는 "지금까지의 학생회는 한

정파의 정치투쟁 선동에 불과했다"며 "즉각적인 한총련 탈퇴와 새로운 학생회 건설에 힘쓰겠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단, 교수, 학교, 학생으로 구성된 4자합의체를 구성해 학교발전 등에 대해 의견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유세에 일한 총학생회 정·부회장 선거 구준서(전자공4), 이미성(국교3)갑후보는 "기존 학생회에 대한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학우들의 동의와 지지를 바탕으로 함께하는 학생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한총련을 사수하고 혁신하는 것이 학생운동을 올바르게 지켜내는 길"임을 주장했다. 한편 2차유세는 내일(11일) 오후 4시 동국관 앞에서 개최되며 후보자들의 정책토론회는 오는 13일 오후 1시 불상앞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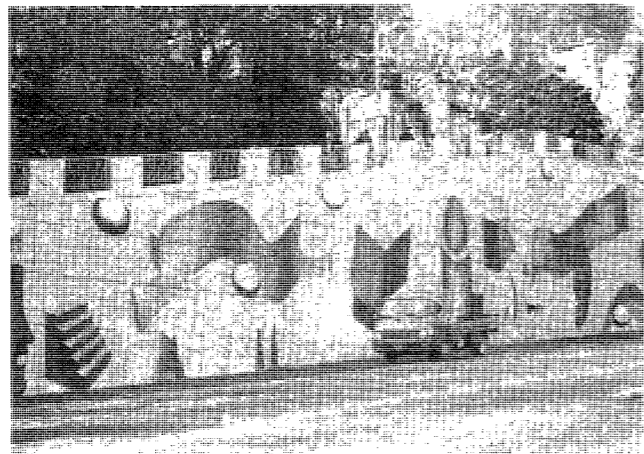


사진은 지난 7일 도서관앞에서 열린 제 30대 총학생회 및 제 13대 총여학생회 선거의 합동유세 장면

이번 1차유세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유세 도중 후보자들간에 자칫 감정싸움으로 변질 수 있는 말들이 오고가서, 지속적인 선거거부로 옮겨지지 않을까" 우려를 표하면서 "이번 선거가 수준높은 정책대결

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주캠은 지난달 24일부터 4일까지 제15대 총학생회 후보자 등록기간을 가진 결과 백재욱(법3)·이부용(경영4)씨가 단독으로 입후보했다. 1차 전체 소견발표회(유세)는

오는 12일 오후 1시 녹야원에서 이뤄지며, 2·3차 유세는 오는 17일 오후 1시와 7시에 각각 열린다. 장소는 오늘(10일)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선거일은 오는 19일로 확정됐다.



오원배(미술학)교수의 지도로 미술학과 4학년 학생들이 그린 변화 동대입구에서 중문까지의 담벽에 그려졌으며 '세계속의 중구'라는 제목을 갖고 있다. 오인택 기자

본교-중구청 교류 세부계획 발표 "법당시설 개방하고 장학혜택 받는다"

본교(총장=송석구·철학)와 중구청(구청장=김동일)은 지난 달 31일 정보·문화 등 구체적인 교류사업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7월 31일 체결한 정보·문화 교류협약에서 의거해, 구체적인 사업을 제시한 것으로 크게 △정보·문화에 관한 사항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지역환경 개선 및 주민복지 △사회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지역주민 교육기회 제공 등으로 나뉜다.

세부적인 계획들은 본교의 법당시설을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하는 것, 중구청 자료실과 본교 도서관(관장=임호일·독어독문학)을 개방, 사진 협의체 체육 시설 개방 등 다수이다. 또한 중구청장 장학제도로 인해 본교 우수학생들이 학기마다 각각 5명씩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중구청에서 아르바이트를 모집할 때 본교자원봉사자가 우선 채용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한의대 '상경투쟁' 학교측과 마찰

학생회, 임상병동 부족 등 교육환경개선위해 '상경' 교수 무리한 본관 진입기도... 몸싸움발생 대화단절·감정악화일로

제17대 한의대 학생회(회장=송용훈·본1)는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실시한 서울캠 상경집회와 그 과정에서 일어난 불미스런 사건으로 인해 학교당국과의 마찰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의대 학생회는 지난달 30일 경주캠에서 송석구(철학)총장을 비롯한 관련 교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상경관련 교육환경 개선과 제반문제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으나, 학교측의 미온적인 태도와 한의대 발전 기획, 안에 대한 제시가 명확하지 못한 점을 이유로 이번 상경집회를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날 간담회에서 학교측은 기초의학 부분 교수 2명지원, 예산편성, 경주병원 증축, 건물내 한의학과 임상실습실 및 연구실 마련 등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한의대측은 교육환경 개선에 관하여 "본과 1·2학년과 3·4학

년들이 서로 분리돼 있어 학문의 연계성을 담보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토로한 뒤 "임상실습을 위해 필요한 침대수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 등 제반 여건이 너무 부실하다"며 이런 제반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나온 한의대 입장이 상경이라 밝히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학교측이 제시한 해결방안은 기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의대에 대한 근본문제를 회피하고 있는 것"이라며 "한의대 중·장기 계획을 빨리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4일 약백50여명의 한의대 학생들이 서울캠에 상경한 후 집회를 갖는 도중에 단식농성단을 위한 천막설치 문제, 5일 본관 진입시도 등으로 인해 학교 직원들과 몸싸움이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크고 작은 부상자도 생겨 서로 감정이 격해졌다. 한편, 5일 학생들과 대처중 경주캠 임상병리 학생계장이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했다. 학교측의

한 관계자는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임상목 계장을 해 한 것은 아니지만 그 도의적 책임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번 한의대 학생들의 태도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또한 양캠 직원 노조도 지난 6일 "학생들에 의해 주도된 행정실 점거 기도로 인해 발생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 더 엄중 경고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7일, 3박 4일의 단식농성을 마친 한의대측은 "목목골 학우들에게 경주 한의대 문제를 산전하는 작업을 이뤄냈고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으며 임상목 학생계장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시했다. 이번 한의대의 상경집회는 절박한 그들의 실정을 서울까지 공분화시키고 투쟁의지를 드러냈다는데 의의가 있다해도, 그 과정에서 나타난 방법상의 문제는 교육환경 개선에 결코 해결책을 제시해주지 못했다.

보리소

언어도단(言語道斷)

정병조 (인문학부 교수)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 가운데는 불교의 전문용어가 상당히 많다. 니카두라 하지메라는 일본의 원로불교학자는 그에 착안해서 생활속에 있는 불교용어에 대한 해설집을 펴낸 적이 있다. 일본어와 우리말은 문법구조나 어휘배열이 비슷해서 불교적 영향을 가장 많이 보편화하지 않았나 생각해 본다. '아수라', '법석' 등 흔히 쓰이는 용어는 모두 불교출어이다. 뿐만 아니라 산리, 동네리 등에도 불교적 색채가 뚜렷하다. 청량리, 불광동, 보문동, 안양동은 모두 불교와 깊은 인연이 있는 곳들이다. 그런데 개중에는 전혀 엉뚱한 뜻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언어도단'이라는 속어이다. 원래 이 말은 선종에서 써 왔다. 선종은 교공과의 차별화를 내세울 때, 언제나 '진리를 언설에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래서 선은 부처님의 마음, 교는 부처님의 말씀이라고 선언한다. 언설이란 얼마나 부정확하고 무책임한 수단인가? 나는 내가 마신 꿀맛을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다. 박한 기쁨, 시린 고통, 충격적인 마음의 행로를 어떻게 말로 표현한단 말인가. 따라서 진리를 언설로 표현하려는 것은 이미 틀린 일이다. 그래서 선종에서는 개구족족, 입을 떼면 이미 진리라는 말어진다고 선언한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방법으로 진리에 도달할 수 있을까. 우선 언설을 자제해야 한다. 불필요한 말은 필수불가결한 훈련을 해야 한다. 그 뒤에 언설의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 말의 길이 짧을수록, 비로소 마음의 길이 열린다고 보았다. 부처님은 영산회상에서 말없이 꽃을 들어 보였다. 진정한 불이(不二)가 무엇이라고 물을 때, 유미거사는 침묵하였다. 그들은 심로(心路)를 열어 보인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이 멋있는 말을 '말도 안된다'는 뜻으로 쓰고 있다. 언어도단, 언어의 길이 끊었다는 것을 비논리적이라는 의미로 격하시켜 버렸다. 그러나 선종의 논리는 비논리적이 아니라 초논리이다. 논리의 끝자리를 전착한 다음, 그 논리의 한계를 벗어나야 한다고 충고하는 것이다. 불교적 해탈의 의미가 세속화되어 버리는 서글픈 현상이다. 언어도단을 '말도 안된다'고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말이 안된다' 이데부터라도 그 말의 의미대로 사용하는 것이 '말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고수동정

- ▲ 김영민(영어영문학)=국제 문화와 사회의 정신분석학회의 논문 발표자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미국 워싱턴 방문.
- ▲ 박선영(교육학)=불교교육학의 제6회 학술대회 학술 발표자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일본 나고야 '아이치' 학원대학 방문.

동대신문 기획 광고

동대신문사 수습기자모집!!!

운명의 를 바꿔 마지막 기회.

막 를 놓치지 마세요 -승무원-

동대 학술상·문학상 작품을 모집합니다.

제35회 학술상 작품모집

- △ 모집분야: 인문과학상: 분상 및 가작 (분상 50만원, 가작 25만원) 사회과학상: 분상 및 가작 (분상 50만원, 가작 25만원) 자연과학상: 분상 및 가작 (분상 50만원, 가작 25만원) △ 응모요령: 2개분야 모두 2백자 원고지 80매 내의 학술논문 △ 응모자격: 서울 및 경주캠퍼스 재학 (대학원생 제외) △ 심사위원: 본사에서 위촉하여 입상작과 함께 발표 △ 제출기간: 1997년 11월 10일부터 12월 10일까지 △ 입상작 발표: 1998년 1월 1일자 본지 지상

제11회 동대문학상 작품모집

- △ 모집분야: 시부문: 3편내외 소설부문: 2백자 원고지 80매 내의 평론부문: 2백자 원고지 80매 내의 △ 응모자격: 서울 및 경주캠퍼스 재학생 (대학원생 제외) △ 제출기간: 1997년 11월 10일부터 12월 10일까지 시상 시부문: 분상 30만원 장려상 15만원 소설부문: 분상 50만원 장려상 25만원 평론부문: 분상 50만원 장려상 25만원 △ 심사위원: 본사에서 위촉하여 입상작과 함께 발표 △ 입상작 발표: 1998년 1월 1일자 본지 지상

정각원, 박성배 석좌교수 초빙 오는 18일 법회 개최

정각원(원장=이법산·선학)은 오는 18일 오후 4시 본교 석좌 교수인 박성배 교수를 위촉해서 '명사 초빙법회'를 개최한다. 이번 법회는 '불교는 모순과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가'라는 주제로 열리며 교직원 및 학생 그리고 일반 신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정각원의 안중철법사는 "현대 사회에서의 모순과 갈등을 불교적 관점에서 해법을 제시할 것이다"라고 의의를 밝혔다.

비대위, 학생의 날 기념 시국선언대회 가제

제29대 총학생회(회장=구장주·야간경영)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유재하·국문4)는 지난 3일 불상 앞에서 '학생의 날 기념 시국선언대회'를 가졌다. 이날 시국선언대회는 1백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대한총련 이적단체 규정철회 △공안탄압 중단과 민주생존권 보장 △학원 사찰 철폐 중단과 학원지킴금 수호 등의 발언과 유재하비대위원장의 시국선언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대회에 대해 비대위원장은 '학생의 날 의의와 현 시국에 대한 총학생회 및 각 단위의 발언'이라고 밝혔다.

유재하 비대위원장은 "실질적으로 29대 총학생회의 마지막 사업이 될 것"이라며 "활동 자체보다는 요즘 시국에 대한 문제인식을 올바르게 하는 선언의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다. 이후 비대위는 시국선언문을 토대로, 자보전과 본교 교수를 및 민주주의와 언론 회의를 만나 얘기를 나누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연극영상학부 졸업영화제 '간장' '도시비화' 등 성행

연극영상학부(회장=이석준·4)는 '97학년도 졸업영화제'를 오는 15일까지 학술문화관 예술극장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2IC를 향하여'라는 주제 아래 새로운·살아있는·열린 마음의 정신을 모아 대학 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다. 본 영화제에서는 9명의 졸업생들이 연출한 작품인 △간장 △도시비화 △델리베이터 △내일을 향해 뛰어라 △일상속 속의 △개배구구 △팔기 △평행선 △라이프 성정 선비이며, 이외에도 영화 스티븐지 전시, 영화제 축하메세지 상영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가 준비된다.

단과대 선거마무리... "이제 우리가"

4개 단위 미등락 - 공대 선거 재투표 결정 - 불대 선관위 해체

각 단과대 정·부학생회장 선거 일정을 마쳤다. 11개 단과대 중 4개 단위가 후보자 미등락, 2개 단과대가 선거·투표과정에 있어 몇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선거를 연기하는 등 평탄하지 못한 올해 단과대선거였다. 학생회장으로 선출된 이들은 다음과 같다. [불교대] 제30대 불교대 학생회장·부학생회장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와 해체로 다음주에 치러질 예정이다. [문과대] 제30대 문과대 학생회장·부학생회장 선거에 단독 출마한 최진환(영문3), 오광진(사학3)조가 당선됐다. 총 유권자 9백97명 중 5백32명이 참여해 53.36%의 투표율을 보였다

이 중 찬성 4백54표(85.3%), 반대 61표(11.4%)로 집계됐다. 이번 선거에 당선된 최진환은 "한총련 사수·혁신과 학생운동의 순수성은 지켜나가고 과학생회의 와의 연계를 공고히 하여 학생들의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과대] 제14대 이과대 정·부 학생회장 선거는 후보자 미등락으로 인해 내년 3월경에 실시할 예정이다. [법과대] 제11대 법과대 정·부 학생회장 선거는 후보자 미등락으로 인해 내년 3월경에 실시할 예정이다. [사과대] 제11대 사과대 학생회장 선거에 단독후보자인 이종렬(정의

3)군이 당선됐다. 지난 4.5일 총 유권자 6백43명 중 3백65명이 참여해 56.7%의 투표율을 보인 이번 선거에서 이종렬은 86.03%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에 이종렬은 "학생회의 구조 개혁과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던 학생 운동의 혁신을 위해 힘차게 달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상대] 제30대 경상대 정·부 학생회장 선거는 후보자 미등락이 있어 내년 3월로 연기됐다. [생과대] 제30대 생과대 학생회장 선거에서 학생회장으로 상나라(생명자원경제과학부2)가 당선됐다. 총 유권자 4백35명 중 2백76명이 투표해 63.4%의 투표율을 보인 가운데 2백32명이 찬성해 84%의 지

지를 얻었다. 이번 선거에서 정회장으로 당선된 이선진(수교3)군은 "학생들의 학생회 불신을 인정하고, 낮은 투표율이었지만 투표자 여러분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예술대] 제11대 예술대 정·부 학생회장 선거는 후보자 미등락으로 인해 내년 3월로 연기됐다. [야간경과] 제14대 야간경과 정·부 학생회장 선거에 단독 후보자인 이종환(전산통계3), 김영삼(경영3)조가 당선됐다. 총 유권자 2천2백67명 중 1천 2백6명이 투표에 참가해 53%의 투표율을 보였고, 찬성 1천1백22표를 얻어 93%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번 선거에서 정회장으로 당선된 이종환군은 "비록 낮은 투표율이었지만, 참가한 모든 학생과 미래나눔의 학생들에게 고맙다"고 말하며 "진정한 미래나눔 학생들의 나침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범대] 제30대 사범대 정·부 학생회장 선거에 단독후보자인 이선진(수교3), 정주영(역교3)조가 당선됐다. 총 유권자 9백 86명 중 5백77명이 투표해 57.9%의 투표율을 보였고, 이중 4백92명이 찬성해 85.9%의 지

회전무대

회전무대 082 광고(?) ...투표 한번 안 한다고 하늘이 무너지겠어? 지난주 이틀에 걸쳐 단과대 정·부 학생회장 투표가 학생들의 무관심 속에서 치러졌는데, 투표마감시간이 임박했는데도 투표율이 50퍼센트도 못 미치는 초조해진 선거 관계자들은 지나가는 학생들을 붙잡아 투표하기를 간청했다. 이에 본회전무대 전 동약인에게 고하기를, "투표일, 깜박하면 동약의 기둥이 무너집니다. 어휴"

주류시대

주류시대 ..."소주와 콜라, 맥주와 사이다." 이 두가지의 공통점은? 바로 주류와 비주류. 요즘 신한국당은 이 두가지 부류(?)의 대립과 반목으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라는. 비주류의 연이은 탈당과 이에 대한 주류의 강공책으로 이제는 각자 갈길로 가는 듯. 이에 이러한 분당은 이미 예상했다는 한 학생 한미다 "처음에 합당은 왜 해?"

'취업자 전형학대 여부' 마찰

야총 지난 4일부터 점거농성...학교측 학칙따라 엄격 처벌

야간경과 총학생회(회장=김선문·경계4 이하 야총)는 지난 4일 오후 5시부터 이부대 교학과 점거농성에 들어갔다. 이번농성은 학교측이 야간경과내 입학정원 중 취업자 전형에 기존의 50%에서 70%로 확대했기 때문이다. 야총에서는 학교측의 이번 정원의 조정결정은 '돈을 벌기 위한 주먹구구식 학사행정의 전형'이라고 주장하고 즉각적인 철회와 학생들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측에서는 '집기를 다시 정리하고 농성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학칙에 따라 엄격히 처벌할 것'이라 밝혀 조기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야간경과의 현재 상황은 교육환경이나 학습의 질이 기준이 아니라 취업자 전형에 대한 교육기회를 제공한다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는게 야총의 판단이다. 94년 신설된 학과들의 재반시설 대비, 올해 신설된 야간지 역학부의 자치공간 부재 등을 실패로 제시하며, "교육시설과 절대공간의 확보, 복지시설 확충" 등이 야간경과교육의 정상화가 먼저 선행되어야 취업자전형 확대를 논할 수

있다는 것이 야총의 입장이다. 그러나 학교측에서는 이번 정원내 취업자 전형의 조정을 바꿀 수 없다고 못박고 아시아지역학부 문제 등 학생들의 요구사항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만큼 즉시 농성철회를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취업자 비율이 늘어나고 해서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맞서고 있어 당분간 마찰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본교의 직원노조(위원장=김정숙)도 성명을 통해 "야총의 점거농성 때문에 노조 소속 직원들의 기본권이 제3자에 의해 박탈하고

한국불교문학사연구회 학술회의 개최

한국불교문학사연구회(회장=이종환·국어국문학)는 오는 14일 오후 1시 30분부터 6시까지 '비록사상과 한국문학'이라는 주제로 명진관(A104)에서 제 7회 정기 학술회의를 개최한다. 91년부터 매년 열린 이번 회의는 우리 역사 속에서 응시했던 불교문화에 대한 검증의 일환으로 마련되는 것이다. 이날 회의는 송병국(광운대 국문과·분회 설립이사)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본교 문화예술대학원장인 홍영식(역사교육) 교수의 기조 강연 발표로 시작된다. 이어서 △소울 세(본교 국문과 교수)의 '비록사상과 동학' △구사회(선문대 국문과 교수)의 '비록사상과 증산도' △장영우(본교 한국어문학 교수)의 '비록사상과 현대소설'이라는 주제 발표가 있다. 이어서 김승호(동덕여대 강사)씨와 장석근(본교 국문과 강사)씨, 유임하(용인대 강사)씨와 정희의(서울대 강사)씨의 질의 토론이 진행된다. 이에 한국문학연구소(소장=홍기삼·국문학)의 한 관계자는 "그 동안 우리 문학사에서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불교문학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로 이번 학술회의 개최를 기대하고 있다.

중앙도서관, 출입 시스템 교체

중앙도서관(관장=임호일·독어독문학)의 현관 출입 관리 시스템이 오는 17일부터 바뀐다. 지난 8일부터 종전의 슬랙스캐너 시스템에서 멀티 스캐너 시스템으로의 전환 공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오는(10일)부터 시험운영기간을 거친 후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다. 이번 들어선 멀티 스캐너 시스템은 기존의 것에 비해 빛의 주사 범위가 넓어 학생증의 바코드를 읽는 시간의 단축으로, 출입이 예전보다 간편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도서관의 최부주 열람계장은 "학생들의 출입에 있어 불편함을 해소하고 좀 더 확실한 학생증의 이용을 정착시키기 위해 이번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밝히고 학생들의 도서관이용시 학생증 지참을 당부했다.

신문방송학과 제1회 학술제 개최

MBC 앵커 이인용 강연·영상 콘테스트 등 행사 세미나를 연다. 또한 이번 학술제기간에는 동국관 3층로비에서 사진전시회가 있다. 한편 14일 오후 1시 1101에서는 서강대 등 신방과에서 제작한 영상물을 가지고 콘테스트를 개최한다. 이와 관련해 박성영 신방과 학생회장은 "처음이지만 모든 신방과 학생들이 열의를 가지고 준비한 만큼, 신방과 발전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이번 학술제의 의의를 밝혔다.

시조를 읽는 세상

시조를 읽는 세상 ..."지난 4일, 인제대 후보의 국민선당이 출범하자 신한국당과 국민회의에서는 'YS의 창당자금 지원 실'을 주장했는데, ... 국민선당은 이에 '정치적 음해공작'이라며 크게 반발하니 선거권은 권력에 눈이 어두운 사람들 때문에 차라 눈뜨고 볼수 없다고. 이러한 정치권에 염증을 느낀 본회전무대지 시한수 읊기를 '창당에 청신에 살려라'라" 이에 대한후보가 답하기를 "청와대에 청의대에 살려라"라. '본'이랑 '목'이랑 먹고 청와대에 살려라"라

짜가판!

짜가판! ...00학부 전공시험 시간에 가장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는 시험시간 30분이 지나도록 교수가 들어오지 않자 조교를 가장 한 한 학생이 칠판에 '짜가'라는 글씨를 쓴 것. 이에 속은 상당수의 학생들이 말 그대로 '짜가'를 했고 그 후 몇분 뒤 교수가 들어와 조교를 진행되었다는데. 더구나 조교를 가장한 학생은 뜻밖의 자라를 지키며 시험을 치렀다는 것. 이에 황당해 하는 귀가 학생 왠, "시간도 짜가, 조교도 짜가, 시험판도 짜가?"

“1998학년도 전기 동국대학교 대학원 신입생 모집”

대학원 (주요) 260-3093,3094. 1) 일반행정 행정학(영어전공) 및 인문학 2) 행정학 석사학위과정 3)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4)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5)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6)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7)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8)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9)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10)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11)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12)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13)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14)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15)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16)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17)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18)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19)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20)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21)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22)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23)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24)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25)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26)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27)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28)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29)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30)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31)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32)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33)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34)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35)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36)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37)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38)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39)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40)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41)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42)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43)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44)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45)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46)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47)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48)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49)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50)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51)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52)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53)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54)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55)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56)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57)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58)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59)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60)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61)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62)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63)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64)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65)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66)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67)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68)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69)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70)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71)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72)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73)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74)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75)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76)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77)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78)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79)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80)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81)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82)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83)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84)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85)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86)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87)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88)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89)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90)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91)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92)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93)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94)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95)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96)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97)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98)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99)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100)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101)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102)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103)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104)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105)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106)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107)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108)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109)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110)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111)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112)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113)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114)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115)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116)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117)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118)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119)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120)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121)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122)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123)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124)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125)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126)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127)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128)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129)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130)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131)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132)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133)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134)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135)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136)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137)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138)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139)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140)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141)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142)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143)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144)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145)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146)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147)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148)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149)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150)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151)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152)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153)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154)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155)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156)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157)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158)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159)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160)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161)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162)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163)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164)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165)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166)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167)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168)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169)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170)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171)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172)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173)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174)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175)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176)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177)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178)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179)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180)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181)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182)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183)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184)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185)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186)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187)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188)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189)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190)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191)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192)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193)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194)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195)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196)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197)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198)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199)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200)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201)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202)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203)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204)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205)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206)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207)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208)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209)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210)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211)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212)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213)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214)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215)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216)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217)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218)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219)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220)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221)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222)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223)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224)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225)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226)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227)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228)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229)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230)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231)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232)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233)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234)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235)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236)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237)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238)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239)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240)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241)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242)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243)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244)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245)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246)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247)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248)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249)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250)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251)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252)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253)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254)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255)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256)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257)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258)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259)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260)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261)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262)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263)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264)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265)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266)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267)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268)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269)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270)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271)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272)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273)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274)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275)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276)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277)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278)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279)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280)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281)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282)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283)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284)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285)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286)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287)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288)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289)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290)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291)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292)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293)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294)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295)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296)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297)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298)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299)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300)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301)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302)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303)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304)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305)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306)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307)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308)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309)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310)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311)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312)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313)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314)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315)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316)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317)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318)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319)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320)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321)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322)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323)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324)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325)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326)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327)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328)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329)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330)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331)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332)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333)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334)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335)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336)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337)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338)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339)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340)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341)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342)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343)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344)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345)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346)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347)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348)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349)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350)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351)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352)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353)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354)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355)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356)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357)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358)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359)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360)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361)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362)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363)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364)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365)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366)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367)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368)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369)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370)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371)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372)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373)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374)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375)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376)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377)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378)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379)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380)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381)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382)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383)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384)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385)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386)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387)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388)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389)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390)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391)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392)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393)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394)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395)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396)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397)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398)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399)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400)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401)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402)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403)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404)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405)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406)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407)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408)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409)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410)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411)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412)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413)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414)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415)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416)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417)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418)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419)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420)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421)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422)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423)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424)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425)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426)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427)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428)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429)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430)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431)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432)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433)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434)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435)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436)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437)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438)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439)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440)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441)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442)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443)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444)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445)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446)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447)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448)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449)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450)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451)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452)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453)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454)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455)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456)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457)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458)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459)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460)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461)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462)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463)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464)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465)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466)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467)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468)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469)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470)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471)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공) 472) 행정학 석사학위과정(영어전

경제공황 진단과 타개책

주가폭락 환율급등 등 금융시장 심각한 위기

경제불안심리극복, 정부정책신뢰만이 경제위기 돌파구

최근 주가폭락, 환율급등으로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이 연일 휘청거리면서 한국경제 전체가 불안에 휩싸여 들고 있다. 기업은 해외 차입이 어려워지고 증자 등 금융조달에 차질을 빚어 자금운영에 초비상이 걸려 건설한 기업까지 부도에 몰릴 위기에 처하게 되고, 가계는 주가하락에 따른 투자손실 및 물가상승에 따른 가계부담의 증가로 불안심리가 팽배하여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이 커지게 되어 경제활동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정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채권시장 개방의 확대, 현금차관 도입 및 외국환은행을 통한 외자조달로서 외환시장을 진정시키고 연금의 주식투자확대, 상장회사의 자사매입절차, 기관투자자의 매수우위 축적으로 주식시장을 부양시키는 등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이러한 초단기적 처방으로 우리 금융이 직면하고 있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에는 회의적인 시각이 크다.

사실 외환위기에 관한 한 금융제도 등을 구조적으로 개혁하는 것 외에 정부의 역할은 매우 제한되어 있다. 만약 정부나 중앙은행이 보유회원을 원화까지 방어에

잘못 사용하면 외국 투기자금의 게임에 말려들어 보유회원만 남비하고 당초 목표도 달성할 수 없을 지 모른다. 최근처럼 전세계적으로 금융불안이 확산될 때는 맥시코와 태국처럼 투기꾼들에게 외환당국이 방어능력을 시험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외환시장의 게임어부는 현재환율의 적정수준, 여부, 원화투매심리의 강도, 외환당국의 방어능력 등을 따져봐야 한다. 최근의 경상수지개선투세, 성장률, 물가 등 경제기초여건을 고려하면 지금의 원화가 크게 과대평가 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국내 금융불안 때문에 상당한 강도의 환율상승 기대심리가 잠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결국 외환당국의 방어 능력이 이러한 심리불안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맡게 되지만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외환은 3백억 달러 수준으로 국제통화기금(IMF)이 적정수준으로 보고 있는 3개월간의 평균수입액에도 못미치고 있다.

그러면 이번 금융사태의 근원적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기위해 우리 경제의 실상을 알아보면 지난 고도성장기 이후 우리경제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보수와

소비를 추구하여 국제수지 악화과 고비용구조의 경제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기업들도 무리한 사업확장과 차입위주의 자금운용으로 재무구조가 크게 악화되자 연쇄부도를 맞게 되어 실물경제가 크게 침체되었으며 이로 인해 은행은 부실채권을 뒤집어 쓰게 되고 비합리적 요소를 안고 있는 금융체계는 자체 해결능력을 갖지 못해 국제경제진반이 위협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내부위기는 시장경관환율제도의 외환수급상황에 다소 반영되어 올초부터 원화가 하락하면서 부분적으로 외환위기를 겪기도 하였다. 이같은 점진적으로 진행되던 금융시장의 불안이 지난달 23일 홍콩주가의 폭락을 계기로 우리나라 주가와 원화를 동시 폭락토록 유도한 것이다. 또한 최근 정치-경제에 대한 불안과 국가신용평가등급의 하락은 동시에 유입된 외국자본의 이탈을 부추기고 국내투자자의 불안심리를 더욱 자극하여 원화의 급락과 주가폭락을 가속화 시켰다.

우리는 이번 사태로부터 국내금융시장과 국제금융시장, 외환시장과 주식시장, 실물시장과 금융시장이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을 재삼 확인하게 되었다. 따라서 정부의 직접적 시장개입이나 개별적 가격관

시사논단



허형도
성경대 국제통상학과

리정책은 금융시장의 혼란만을 가중시키므로 자유시장경제를 따지는 총체적 경제정책만이 이러한 사태를 해결할 수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금융위기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경제내에 확산되고 있는 경제 불안심리를 해소시키고 정부정책에 신뢰성을 얻어야 한다.

이러한 신뢰성을 얻기 위해서는 첫째, 최근과 같은 사태 등에 과잉반응을 보이지 않고 단발적 대응을 자제하여 제반 금융정책 수단간의 적절한 조화를 유지하여야 한다. 둘째, 충분한 검증없이 즉흥적이고 실험적인 정책실정은 지양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금융개혁을 꾸준히 밀고가는 일관성을 보여야 한다. 셋째, 개방화에 따른 새로운 환경변화를 직시하여 정확한 현실진단과 경기예측, 신속하고 효과적인 정책대응능력을 갖추어 우리금융시장이 국제투기세력의 공격대상이 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사설

학생회 건설 학생들의 몫

차기 총학생회의 대표를 뽑는 선거가 요즘 동학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지난주 등록을 마친 두 후보진영이 각자 자신들의 주장과 내년도 학생회상을 학생들에게 알리려고 분주히 움직이고 있으며 지난 7일에는 1차 유세가 도서관 앞에서 펼쳐지면서 학생들의 관심도 서서히 총학생회 선거로 이끌리고 있다.

어느덧 중반으로 치닫고 있는 학생회 선거도 이번주 절정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11일 있을 2차 유세와 13일에 펼쳐질 공청회 자리를 통해 양후보진영의 정책성이나 차기 학생회에 대한 비전은 어느정도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유권자인 학생들의 태도가 지난 1차유세때와 같은 수준이라면 내년 학생회의 모습은 변화와 혁신이라고 보다는 답습과 퇴보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 불보듯 뻔한 일이다.

이번 총학생회 선거는 학생회 혁신의 장이 되어야만 한다. 지난해와 올

해 학생회 간부들의 잇단 구속·수배로 학생회는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였고 이로 인해 학생회는 심각한 공백 상태에서 중심을 잃고 표류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이런 학생회를 올바른 세우기 위해서 올해 학생회 선거는 학생들의 뜨거운 관심속에 학생회 혁신의 장으로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최근 몇 년째 계속되는 50%대의 투표율이 올해에도 계속된다면 올바른 학생회를 세우기에 역부족일 것이다. 학생들의 학생회에 대한 애정과 관심만이 학생회 혁신을 이룰 수 있고 이를 통해 올바른 학생회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

아무췌록 학생회의 사활이 걸린 이번 선거에서 뼈를 깎는 고통과 아픔을 감수하더라도 학생회의 혁신을 이루고 올바른 학생회를 건설할 수 있도록 양 후보진영과 학생들의 끊임없는 노력을 기대한다.

양심수 문제의 공론화

요즘 정국은 양심수 문제와 관련해 매우 어수선하다. 급기야 색깔논쟁으로까지 번지는가하면 법 적용의 이중 잣대가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국민들은 이런 상반되는 모습을 대할 때마다 우리들의 모습중 반쪽의 어두운 면이 드러나는 것 같아 쓴웃음을 짓곤 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현재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양심수들이 차치한 감옥에서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며, 또한 양심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같은 시공을 살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양심수란 폭력을 주창하거나 직접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념이나 인종, 언어, 국적, 사회, 경제적 이유 때문에 감금된 사람들을 지칭한다. 정부는 이들 대부분을 만 정부 세력으로 간주,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자유민주주의에 위배가 된다는 명목아래 길게는 수십년 이상 적게는 몇개월까지 사회로부터 격리, 수용시키고 있다.

흔히 자유민주주의국가라 함은 사상과 집회결사의 자유가 보장된 국가를 일컫는다. 그런데 왜 그들은 보통의 사람들과 사고방식과 논리의 선차성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긴 세월을 커다란 고통과 시련으로 감내해야 하

는 것인가. 실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임에 틀림없다.

소위 문민정부하에서 대통령의 아들과 전직대통령의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관대하면서 왜 그들에게는 그리도 모질게 대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는다. 현상황에서는 더 이상 희망을 찾기 힘들다. 그러기에 우리는 또다시 대선후보들에게 기대를 걸어 본다. 그들은 양심수문제를 공론화시켜 정책대결의 중요한 소재로 삼아야 할 것이다. 물론 이 기대조차도 그리 낙관적이진 못하다. 최초로 '양심수' 관련 발언을 했던 대선후보는 다른 후보진영의 맹박에 밀려 말꼬리를 흐리고 말았고, 문제를 제기했던 후보진영과 검찰역시 민기협 등의 민간단체에 제대로된 해명 한마디없이 사안을 정리하고 말았다. 모두가 공론화를 꺼리고 있는 것이다.

우리사회가 아직도 양심수의 존재 여부를 둘러싸고 논쟁에 휩싸여 있다는 사실 자체가 부끄럽다. 이러한 후진성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모든 문제를 공론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양심수문제를 암흑속에 남겨둔다면 우리는 세계화를 표방하면서도 급기가 공존하는 미개국가로 낙인찍힐 것이다.

전공선택 허와 실

인기학과편중 소속감결여 등 문제 가시화

학과제 장점 살려 학부제 맹점 개선해야

오랫동안 심숙고한 끝에 본교 학부·계열학생들은 전공을 선택했다. 학부·계열 재학생과 편입생을 대상으로 한 이번 전공결정에는 95년 입학정원의 1백 50%까지 선발해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자기가 선택한 전공(학과)으로 갈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전공 배정현황을 살펴보면 공과대의 경우 정원이 60명인 식품공학과는 지원자가 6명뿐인데 반해 컴퓨터 공학과는 정원 1백20명을 넘어선 1백66명이 지원해 인기학과와 비인기학과와의 구분이 명확해짐을 알 수 있다. 그에 따라 인기학과와 비인기학과와의 교수 1인당 학생수의 차이가 커지게 되었고 자연히 인기학과와의 교수 충원도 시급하게 되었다. 또한 강의실 확보, 학생자치공간 배정 등 부차적인 문제도 잇달아 발생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또 하나의 문제는 소속감 결여이다. 공과대 한 학생은 "내년에 얼골도 모르는 복학생들과 서먹서먹한 관계에서 수업을 듣는 것이 부담스럽다. 과가 없으니 누구와 어떻게 단합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학부(계열)	전공(학과)	'95 입학정원(A)	최대배정 정원	배정 인원(B)
공과대	화학공	70	105	24
	식품공	60	90	6
	산업공	110	165	50
	기계공	60	90	65
	컴퓨터공	120	180	166

라고 호소했다.

게다가 올해는 휴학생이 많아 전공선택에 문제가 없었지만 내년에는 최대배정인원 초과시 결국 성적에 의해 전공선택이 좌우된다는 것이다. 전공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복수전공제도가 있긴 하지만 그 제도 또한 성적으로 당락이 좌우되기 때문에 전공선택은 여전히 한계가 있다.

학과제의 한 관계자는 "소수의 학생들만 지원한 학과는 복학생들과 합치면 전공과목이나 기타 학사일정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이며, 96학년도에 5개학과를 통합한 공학계열을 올해는 정보산업학과와 공학계열로 다시 나눈 학년의 시행



최우를 보완했다"고 밝혔다.

타학교의 경우 여성여대의 총학생회는 '학과제로의 전환'을 강하게 주장해 학교의 약속을 받아냈지만, 교육부의 '96학년도 대학입학정원' 역시 학부제에 기인해 내년부터 학과제로 전환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한편, 현안에는 서울·안산 양 캠퍼스에 학부제 공동투쟁위원회를 구성해 설문조사, 서명운동, 단식투쟁 등을 통해 학과제로의 전환을 학교측에 요구하고 있다.

이렇듯 '제2의 입시'로 불리는 학부제는 '다양한 학문을 접함으로써 전공선택의 폭을 넓힌다'는 기본취지는 지켜졌지만, 그에 따른 재반문제의 해결방안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학부제의 시행착오를 인정하고 학과제로 완전 개편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수는 있지만 그에 앞서 신중히 검토해 학과제의 장점을 살리면서 학부제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오인택 기자

KEUMKANG CHEMICAL CO., LTD. KOREA CHEMICAL CO., LTD. KEUMKANG CONSTRUCTION CO., LTD.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 우리는 끝없이 도전한다!

누구나 가는 길, 누구나 하는 생각으로는 미래를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비인기 종목의 실용을 극복하고 당당하게 세계 정상으로 발돋움한 한국 핸드볼처럼, 40여년간 남들이 가지 않는 길, 남들이 하지 않는 생각으로 맡은 분야의 최고가 되어 온 KCC - 건축자재의 대명사인 금강, 세계적 도로업체로 성장한 고려화학, 원벽주의로 건설의 새바람을 일으키는 금강종합건설까지 KCC는 남다른 미래 도전정신으로 아름답고 편안한 생활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사실모집

- 채용형태 : 권역별 학교추천 채용(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 모집부서 : 인문사회계, 화공, 전기, 기계, 토목, 건축, 디자인계, 전산
-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97.11.1~22
- 지원서 배부처 : 각대학 취업부도실
- * 기타 사항은 지원서 내의 안내서 참조 바람

(주) 금강 고려화학 금강종합건설

● http://www.kccworld.co.kr

동약로



상경

지난 5일 3시반 분관 앞. 상경한 경주캠 한의대 학생들은 '교육환경개선 요구'를 외치며 스크럼을 짜고 분관진입을 시도한다.

학생들은 어느새 오던 길로 발길을 재촉한다. 서울캠퍼스 신방과 한 학생에게 이를 지켜본 소감을 묻자 "처음엔 시찰의 열악함을 듣고 공감을 많이 했지만 나중엔 한의대생이 바라는 것이 상경이라는 말을 듣고 파이기주의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러나 한의대 송은유(본1) 학생회장은 "우리는 경주대 서울이든 어디든간에 제대로 시설이 갖춰진 곳에서 임상수업을 받고 싶습니다. 또한 예과와 본과가 모두 한 곳에서 수업을 받고 싶습니다. 그뿐입니다"라며 '상경'을 주장하러 온 것이 아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하기 위해 서울에 온 것이라 역설한다.

"경주캠퍼스의 한의대는 80년대초 40명있던 정원을 두배인 80명으로 증원했습니다. 이로써 시설의 낙후성과 임상실현의 어려움은 배가 되었고 학교는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 주지 않은 채 '서울 한방병원 파견 수업'을 그 미봉책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런 결정 이후 경주한의대는 교육환경의 낙후성이 가중됐고, 학생들은 서울·경주 분리 수업으로 학생들간 교류를 갖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정황한 한의대 상경실명투에 나지막히 그가 내뱉는 "재대로 된 교육환경 요구의 목소리가 '파이기주의'라면 대학에 이기주의의 아닌 것이 없을 것"이라는 말이 컸기에 울린다. 최진 기자

양심수 문제 긴급 토론회

양심수 문제 긴급 토론회



박원순(참여연대 사무처장) 변호사가 발제를 하고 있다.

“양심수를 석방하라”

국제적으로 비판 받는 국가보안법... 인권 보장해야 진정한 민주주의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와 인권위원회의 공동주최로 지난 7일 오후 4시 대한성공회 강당에서 '양심수 문제 긴급 토론회'가 열렸다.

최근 김대중 총재의 '양심수 사면' 발언으로 불거지기 시작한 양심수 논란의 실체를 분석하고, 인권실상의 점검과 대안 마련을 위해 열린 이번 토론회는 남영두 한국기자협회 회장의 사회로 손석춘 한겨레신문사 노조위원장, 한인섭 서울대 법학과 교수, 김훈 시사저널 편집인, 강금실 변호사, 신기남 국회의원, 최규영 국민승리21 정책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박원순(참여연대 사무처장) 변호사가 '양심수 이해를 위한 시론'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했다.

박원순 변호사는 발제에서 "대부분의 양심수들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사람들이지만 국제적으로 비판받고 있는 것이 국가보안법"이라며 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에서 정의하고 있는 양심수를 설명하는 등 국제법과 권위자들의 발언을 통해 한국사회의 양심수 문제를 비판했다.

앰네스티는 "폭력을 주장하거나 직접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자신의 신념이나 인종, 언어, 국적, 사회·경제적 지위 때문에 '감금된 사람들'이라고 양심수를 정의

하고 있다. 여기서 신념이라 함은 어떠한 내용이나 사상과 없고, 특히 정치적·종교적 신념으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의 양심수를 구성하고 있다.

앰네스티의 양심수 정의에는 '폭력을 주장하거나 직접 사용하지 않았는데도'라는 조건이 있어 '폭력'에 대한 논쟁이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국제사면위 집행위원인 Ross Daniels의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 중 '만약 테러조직을 만들거나 폭력혁명을 공개적으로 추구하다 구속되었다면 양심수에서 배제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양심수로 봐야 한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 억압체제에 항거하기 위한 물리적 충돌은 정당한 저항권 행사로 볼 수 있다'는 발언은 폭력의 정도와 원인 등 종합적인 판단 없이 양심수를 부정할 수 없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박원순 변호사는 '어떤 사상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대로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 받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자신의 사상이나 신념을 표현하다가 구속됐다면 양심수라고 할 수 있다'는 Ross Daniels의 말을 인용해 다시한번 '우리나라에는 양심수가 한 명도 없다'는 정부의 공식입장을 부정했다.

끝으로 그는 "우리나라 언론이 인권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민주주의의 핵

심인 인권이 짓밟히고 관심 밖이라는 사실에 가슴이 아프다"는 말로 발제를 마쳤다.

박원순 변호사의 발제가 끝난 후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인권에 무관심한 언론과 불합리한 우리나라의 인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강금실 변호사는 한국사회에 만연해 있는 '흑백논리'를 꼬집으며 하나의 행동으로 수십년의 수감생활을 해야 하는 등의 형법은 헌법의 기본인 '인간존엄'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국가보안법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또한 토론자들은 '우리나라에 양심수가 없다'는 말을 부정하며 '인권회복, 국민대화합의 차원에서 양심수는 석방돼야 한다'고 한결같이 입을 모았다.

토론 이후 간략한 질의·응답으로 막을 내린 '양심수 문제 긴급 토론회'. 1백여명의 참석자 중 유난히 진지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 사람들은 당일 양심수의 가족들이었다. 그들은 토론회가 진행되는 동안 자리를 뜨지 못하고 내내 진지한 자세를 보였으며, 눈물을 글썽이는 가족도 있었다.

양심수 문제를 비롯한 한국의 인권실상을 짚어보고 인권회복의 계기를 만들고자 열린 이번 토론회가 진정한 민주주의로 갈 수 있는 주춧돌이 되길 기대해 본다. 김홍환 기자

13일-전태일 열사 27주기

박광수 감독의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이라는 영화를 통해 널리 알려진 전태일 열사가 신화한지 오는 13일로 27주기가 됐다.

전태일기념사업회(회장=김금수)는 지난 2일 마석모란공원의 전태일열사 묘역에서 추모제를 지냈고,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렸던 9일 새벽에는 노동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추모제를 올렸다.

1970년 11월 13일 평화시장의 광범한 재단사였던 전태일은 혹독한 노동환경과 임금문제 등의 근본적인 개선을 요구하다가 기업 및 노동당국으로부터 거절당하자 자신의 몸에 석유를 끼얹고 분신 자살했다.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는 유언으로 당시 동료들로 하여금 같은해 11월 27일 청계피복노조를 결성하게 하는 등 한국노동운동의 모태가 된 이 사건은 오늘날 경제민주화와 고용안정보장이라는 또다른 노동운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편 올해 여섯 번째를 맞는 전태일노동당은 삼미특수강노동조합과 노육회(민주노동총) 울산지역본부 부의장씨가 수상하게 됐다. 유철주 기자

김현철피고인 보석석방의 부당성

법앞에 평등하지 않은 대통령 아들 형평성 어긋난 판결... 또 한번 국민우롱

국정을 농단하고, 권력형 부정부리를 저질러 특가법상의 양심수 및 조세포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현철피고인이 항소심재판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다.

형사법상 보석이란,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고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이다. 구속형정의 효력을 그대로 존속시킨다는 점에서 구속의 취소와 다르고, 보석금의 납부가 석방의 조건으로 된다는 점에서 구속의 집행정지와 다르다. 보석제도는 무죄추정의 법리에 바탕을 두고 보석금의 불수리는 심리적 강제에 피고인의 재판출석을 담보하면서, 재판준비를 할 수 있는 신체의 자유를 허용하고 미결구금의 부당한 장기화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여 피고인의 인권보장을 이념으로 하는 제도이다.

보석자가 결정은 법원(재판부)의 고유재량이라므로 존중되어야 한다. 또한, 김현철피고인의 보석신청은 형사소송절차상 피고인에게 주어진 권리행사이므로 법적절차의 흠은 없다. 불구속 수사와 불구속 재판이 형사소송법의 원칙이다. 그러나 통상 법원의 보석허가는 수형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중병인 건강상의 이유나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통한 피고인의 반성과 처벌효과 등을 내세워 허가하는 것이 관례였다. 한편, 공소사실을 부인하면 보석을 허가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며 불구속 재판을 받다가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면 법정구속하는 것이 법원의 관례이다.

김현철피고인의 보석 석방은 전례를 무시하고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석이 이루어졌다는 점과 1심 판결이후 수감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 상태가 나쁘지 않았으며,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관리했던 92년 대선자금 잔여금 70여만원을 국가에 환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도 이 부분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고 진정한 반성의사도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석이 결정된 것이다.

항소심재판부는 조세포탈죄가 김현철피고인에게 사법 사상 처음으로 적용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조세포탈죄에 대해 유·무죄의 논란이 많은 만큼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기 위해 보석을 허가했지만 이 논리는 설득력이 약하다. 6개월에 걸친 법정공방 끝에 3년 실형을 선고된 피고인에게 추가소명 기회를 준다는 것도 다른 권력형 부정부패자의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또한, 보석을 허가한 항소심재판부는 '양심수재제가 사안이 크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보석을 허가했다. 기업인들로부터 받은 대가성 돈 66억원이 큰 돈이 아니라니 이런 기준이 어디있는가? 66억원의 양심수제한 사안이 크지 않다면 어떤 사안이 크다는 말인가? 김현철피고인의 비리는 권력형 비리의 전형적인 사례이고 66억 금액만으로도 중죄인데 항소심재판부가 죄질이 가볍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법원의 이런 보석 허가논리는 국민들로 하여금 '유전무죄(有錢無罪), 유권무죄(有權無罪)'의 법적 허무주의를 갖게 한다.

아무런 공적도 없이 단지,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국정을 농단하고 나라의 기반을 흔들며 사회적 파장을 부른 부정부패를 저지른 피고인을 구속한지 6개월도 되지않아 석방시켰다는 것은 어느모로 보나 국민의 법감정과는 괴리가 있다.

김현철피고인의 보석 석방은 사법부가 또다시 권력에 가까울수록 법은 멀고, 법원이 감자에게는 약하고 약한자에게는 무서운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국민들은 항고심재판부의 보석결정이 집행유예를 예고하는 전단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서 이 재판을 지켜보고 있다.

이제라도 사법부가 정의를 바로 세우고, 국민을 위한 사법부로 태어나고자 한다면 보석결정을 취소하고, 항고심재판(2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 검찰 또한 정치검찰의 오명을 벗고 정의의 검찰로 바로 서고자 한다면 이제라도 항고심재판부의 보석 결정에 즉시, 항고를 해야 한다.

재판부는 유전무죄·유권무죄의 이중잣대로 사법정의가 무너지고 국민의 신뢰를 잃어 법원이 법원으로서의 존재의미를 상실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또한, 항고심 재판부는 국민들이 이 재판에 대하여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말아야 할 것이다.

이철호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꿈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생생했어 무슨 꿈이냐고? 자, 들어봐. 아주 깊은 산속이었던. 연못이 하나 있고 이름모를 향내가 자욱하게 깔려있는 그런 신비한 곳. 내가 거기 있었어 그런데 연못에서 갑자기 커다란 용이 나오는데. 하지만 겁이 없었어. 용의 인상이 너무 좋았거든. 파란 빛이 반짝이며 귀를 따지는 모습. 그런 용이 내게 다가오더니 까만 구슬을 내뿜어 던져주고는 연못 속으로 사라졌어. 한참이 지났을까, 그 용이 다시 나왔어. 그러더니 내게 뭐라고 얘기하는거야. '삼천...?' 거기서 그만 잠이 깬어 무슨 꿈일까? 혹시 태...몽? 그건 말도 안되지. 난 일어난 22살 처녀인데. 결국 하루 종일 수업이 귀에 들어오지 않더라. 하지만 굉장히 좋은 꿈인 것은 분명했어.

그래서 복권을 한 장 샀지. '1억원이나 확 먹어라.' 그러곤 학교 앞 커피전문점에 갔어. 그런데 아마 처음일거야. 22살 내 인생에 그렇게 가슴이 뛰었던 파란색 앞치마를 두른 너무도 멋진 아르바이트 남자... 순간 내 머릿속엔 오늘 아침의 꿈이 살짝 스쳐지나갔어 그 커피전문점 이름이 바로 깊은 산속 용담생이었거든. '뭘 드시겠어요?' 어쩔 목소리로 저렇게 멋질까. '해, 헤이즐넛이요.' 헤이즐넛이 왔을 땐 난 다시 한번 놀랄 수 밖에 없었어. 헤이즐넛의 향이 바로 꿈속의 그 향이었던거야. 꿈대로라면 오늘 드디어 내 남자가 생긴다는 거지. 그 때였어. 내가 막 설렁탕 타려는 순간 그 애가 발을 걸은 건. 헤이즐넛은 향으로 마시는 거예요. 설렁탕 타면 향이 죽죠. 그래서 이거랑 드셔보세요. 진짜 초콜릿으로 만든 초코케익인데 헤이즐넛이랑 잘 어울려요.' 그러면서 그 애는 작은 초코케익을 하나 주고

갔어. 초코지오? 맞아, 꿈속에서도 용이 까만 구슬을 주었었지. 그가 준 초코지오. 정말 촉촉하고 부드러웠어. 헤이즐넛하고 정말 잘 어울리더라. 난 초코지오를 먹으며 그와의 다음 장면을 그려보았어. 내게 어떻게 데이트 신청을 할까? 꿈속에서 용이 뭐라고 했지? 삼천...? 그 애, 삼천... 뭐라고 했는데. 뭘까? 삼천번만에 만난 이상형이야? 우린 삼천년전 전생애 연인이었다? 그래, 이게 드라마틱한걸?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로 갔어. 울 거울은 따뜻하게 보내줬구나. 잔뜩 부풀어 오르는 마음을 가까스로 억누르면서. 그런 내게 그는 멋진 목소리로 말했다. '삼천...원인대요' '영, 웬 삼천원? 삼천년이면 아닌 삼천원? 그는 다시 말했다. '삼천원인데요.' 이게 아닌데, 이리하면 안되는데. 내 용공. 그 용공이 순전히 초코지오를 먹어보는 꿈? 이제 초코지오 맛이 정말 환상적이더라...



헤이즐넛에는 초코지오가 무료!!

초코지오 포스타가 붙어있는 커피전문점으로 오세요. 부드러운 헤이즐넛 커피를 주문하시면, 부드럽게 녹는 진짜 초코케익, 초코지오를 드립니다.

동국대학교
사카 263-1383, 팀파 263-0888, 베가스 265-6888
CAN DO 269-6723 프리터폰 273-2177



초코지오 ChocoGio

겨울에 먹는 초코케익

유통기한 확인하여 식품안전 유통정보

지난 7일 총학생회장·총여학생회장 선거 이후
보자들의 1차 유세를 시작으로 뜨거워진 '98학생
회 선거.
후보자들을 만나 그들이 말하는 '98동약'을 들
어보았다. 편집자

그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사람만이 희망이다”



갑 후보인 구준서(전자공4)·이미성(국교3) 조

진정한 학생회 모습 하나씩 되찾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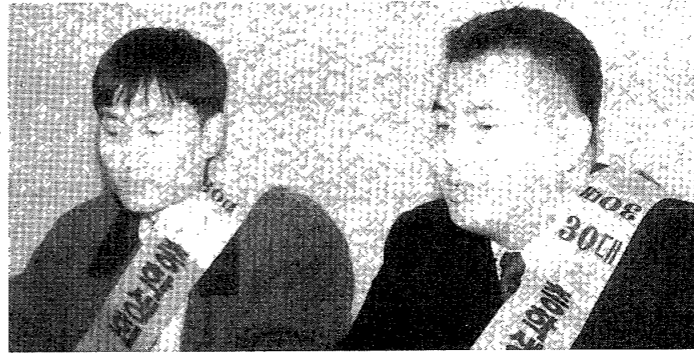
붉은 악마가 한국의 유일한 희망인 지금
동약에서는 그래도 사람들이 희망임을 의
치는 이들이 있다. 이번 30대 총학생회 선
거에 갑후보자로 나온 구준서(전자공 4)·
이미성(국교3)이 그들. 이들을 만나 출마동
약과 사람이 희망인 이유를 들어보았다.

- 출마 동기는.
=우리는 한총련과 동국대의 운동을 사
랑한다. 비이성적인 탄압이 공공연히 자행
되는 시대속에서 떠나야 할 때 떠나는 것
도 필요하지만 떠나야 할 때 떠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우리가 나선 이유는
학생들에 기반을 둔 학생회, 총학을 총학답
게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다.
- 제 29대 총학생회를 평가한다면.
= 한마디로 '순결한 아픔'이라 평하고
싶다. 의지와 열의는 많았지만 뜻대로 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었다. 한해동안 공대등
미선거 지역에 대한 의견수렴이 부족했으
며, 단위 사업을 하는데 나타나는 문제점들
을 중앙에서 해결해 주는 노력이 부족했다
고 본다. 그러나 성과가 있다면 학우들과
함께 할 수 있었던 '수요 영화제' 개최와
도서관24시간개방 시행, 아산관대 등일 것

- 이다.
- 정책 및 공약은.
= '사람만이 희망이다'라는 말처럼 학우
를 희망으로 여기고 그들의 이해와 요구를
받아들이는데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이
를 토대로 학생회의 기본적 모습을 되찾음
으로써 학우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관지 발행이나 회의자료 공개 등 구체적
인 실천모습을 갖출 것이다. 또한 학우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학교를 위해서 '대학교
육개혁 위원회'를 구성해 함께 학교발전을
이야기할 것이다.
- 학부제에 대한 평가와 극복 방안은.
= 완벽하게 준비되지 못한채 시행된 것
이 문제의 시초였다. 2년이 지난 지금 열외
보인 학생들은 모두 자신이 원하는 전공을
선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학생들이 이
에 대한 부담감으로 휴학·인원을 했다. 이
들이 복학을 할 경우에는 문제가 배가 될
것이다. 제주체들의 논의 없이 시작된 것이
지만 지금까지라도 학부제·주체들간의 논
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 학내복지실태에 대한 평가와 극복방안은.
= 복지시설은 당연히 학교에서 학생을 위
해 보장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 그렇지 못하다. 타학교보다 지방학생이 월
선 많음에도 불구하고 빈번한 기숙사 하나
가지고 있지 못하다. 또한 도서관은 절대
공간의 문제이다. 학생회에서 미봉책으로
전공서적참고자료의 부족을 해결해 주는 것
보다 직원들과 연대한 '자치기구' 구성을 통
해 장기적 해결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 송석구총장의 그간의 활동에 대한 평가와
내년에 있을 총장선거에 대한 입장은.
= 행정 전산화와 발전기금모금 등 눈에
띄게 노력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었는가에 대한
물음을 하고 싶고 학생들의 의견수렴 없는
독단적인 모습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총장 선출 방식에 있어서도 어떠한 방식으
로라도 학생들의 권리를 표현 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
- 학생운동에 대한 평가와 입장은.
= 연대사건을 겪으며 한총련은 많은 반
성과 노력을 했지만 정세인식이 세련되지
못한 것이 아쉬운 점이다. 하지만 한총련은
대중조직이기 때문에 혁신을 통해 바뀌나
가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러
기 위해서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 과 학생
회 회화이다.

“기대하십시오 동대가 바뀔니다”



을 후보인 허정수(정외3)·김준환(건축공3) 조

한총련 탈퇴하고 학교발전에 힘쓸터

살수대접의 고구려장수 을지문덕이
1997년 동약에 나타났다. 제 30대 총학생
회장 선거에 임후보한 기호 을 허정수(정
외3)·김준환(건축공3)조가 바로 그들이
다. 동국발전, 한총련 탈퇴를 주장하며 스
스로 비운동권임을 선언하는 그들은 '기
대하십시오, 동대가 바뀔니다'라고 입을
모은다. 무엇을 기대하라는 것인지, 동대
가 어떻게 바뀔 것인지 인터뷰를 통해 들
어보았다.

- 출마동기는.
= 기존의 총학생회는 정치투쟁에 치중
해 학내문제를 등한시 했다. 자연스럽게 일반
학우의 의견이 학생회에 반영될 수 없었
고 학우들과 점점 멀어지는 학생회가 되
었다. 이를 바로잡고 싶었으며 또한 학교
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보고 싶었다.
- 제 29대 총학생회에 대한 진단과 평가.
= 우선 한해동안 노력한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학우들이 원하는 것은 명확분위기
조성이지 정치투쟁이 아니었다. 29대 총학
생회는 한총련이라는 중앙기구의 하달명
령에만 치중했기 때문에 학우들에게 어떤
당한 것이다.

- 주요정책과 핵심공약.
= 우선 학교발전을 위해 재단, 교수, 학
교, 학생으로 구성된 4자합의체를 결성하
고, 동국가족 한마당을 개최해 연례행사로
정착화 시키겠다. 또한 동국인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며
면학분위기 조성에 힘 쓸 것이다. 예를 들
자면 취업률 30% 향상책 마련, 도서관 검
색용 컴퓨터 증가, 교내서점 확충 등이 있
다.
- 학부제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 극복방안.
= 학교가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
서 학부제를 시행했고, 그로부터 2년이 지
난 지금 학부제 입학생들이 전공선택으로
많은 혼란을 겪고 있다. 따라서 학교는 학
생들이 원하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게 최
대한 보장해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는
복수전공의 폭을 넓혀 해결해야 할 것이
다. 그러나 학부제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학내 의견을 수렴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
- 학내복지실태에 대한 평가와 보완책은.
= 최근 외형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지
만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요구하고 진정
필요로 하는 부분은 등한시 된 것이 사실

- 이다. 일례로 도서관의 경우를 보면 1층로
비에 50대의 컴퓨터가 놓여 학생들이 이
용을 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학생들은 공
부를 할 수 있는 열람실을 필요로 한다.
결국 모든 복지시설은 공간문제로 귀결된
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학교 주변에 과감
한 투자를 해서 공간확보를 해야할 것이
다. 또한 야간수업을 듣는 여학생들의 신
변안전을 위해 여학생의 주차를 허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송석구총장의 그간의 활동에 대한 평가
와 내년에 있을 총장선거에 대한 입장은.
= 현 총장은 동국발전을 위한 재원확보
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독주한다는
느낌이 없지 않다. 우리가 원하는 총장은 재
단을 위한 총장이 아니라 학생을 위한 총
장이다. 따라서 내년에 총장선거에 학생
들의 참여를 보장받도록 노력할 것이다.
- 학생운동에 대한 평가와 입장은.
= 한총련은 정치투쟁과 폭력적인 시위
로 일췌했다. 이대로 한총련을 따라간다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당
선된다면 한총련을 탈퇴할 것이다. 그후
무관심한 학우들과도 함께 할 수 있는 학
생회로 거듭나겠다.

총여학생회장 후보 인터뷰

동약여성의 든든한 '백'이 되고싶다

이제 동약의 여성들에게 든든한 백이
생긴다?! 동약여성의 든든한 백이 되고자
제13대 총여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한 이경
원(철3·정후보)과 이기양(인문2·부후
보)양. 자신감과 의지로 발타고 있는 그들
의 눈빛과 남아있는 자갈들을 모두 걷어
내겠다는 그들의 다짐이 사뭇 진지하기만
하다. 어떻게 동약여성의 든든한 '백'이
되고자 하는지를 들어보았다.

- 출마동기는.
= 폐쇄적인 사회에서 여성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소통공간을 마련하고자 출마

- 하게 되었다.
- 구호 또는 기조의 의미는.
= 실제로 성폭력 등 부당한 일을 겪고
도 개인적으로 해결하지 못해 그냥 넘어
가는 학우들이 많은데, 이들을 위해 총여
가 현실적인 부분에 직접 개입을 해서 힘
이 되어주겠다는 뜻이다. 말 그대로 동약
여성의 든든한 '백'이 되겠다는 것이다.
- 선전물이나 유세시 자신들의 이름을 '정
이경원', '이기양'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 '부모성' 같이 쓰기 운동'을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근본적으로 남·녀평등

- 을 실현하기 위함이다. '자식은 아버지의
성을 따라야 한다'는 당연의 세계에 소송
결점을 찾아낼 것이다.
- 12대 총여학생회를 평가한다면.
= 12대 총여는 여성의 문제를 알리고
문제제기를 통해 총여의 정체성을 확립하
고 입지를 넓혔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할
만 하다. 하지만 현실개입이 다소 미흡해
추상적이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3대
총여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현실적인
문제를 실천적으로 해결할 것이다.
- 그렇다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
떻게 노력할 것인가.
= 여성취업문제이다. 이는 단순히 '취
업'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가 갖고 있는 모든 여성문제와 관련
이 있기에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이다. 이
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단체 등 외부와의
연대를 통해 불합리한 사회구조를 비판하

- 는데 입장을 설 것이고, 여학생을 위한 취
업박람회 등을 통해 문제제기를 하고 해
결점을 찾아낼 것이다.
- 가장 중점적으로 다룰 사업계획은.
= 학교측이 성폭력 상담소를 건설하게
하는 것이다. 현재 동약에는 성폭력 피해
자를 위한 것이 아무것도 없을뿐더러 가
해지를 처벌할 수 있는 학칙도 없다. 이는
사회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학교당국이
전문인으로 구성된 상담소를 만들어야 한
다. 이를 위해 17개 대학이 모인 '학내성
폭력근절과 여성권 확보를 위한 여성연대
회의'를 통해 학교측에 문제제기를 하고
상담소 건설을 요구할 것이다.
- 또한 여성문제를 전문·신속적으로 널
리 알리기 위한 여학생 교지 편집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 기존에 해 오던 총여의 사업들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 = 우선 3월
에는 총여를
알리고자 거
리문화제를 준비
할 것이고, 5월
에는 기존 여
성주간을 포함
하는 체육대회
를 개최할 계
획이다. 백이
대회는 기간을
축소해 집중효
과를 낼 수 있
도록 할 것
이다. 또한 동
시에 하 '강의실 밖의 강의, 대안적인 교
육실적'이라는 백이 대학의 의미에 맞는
강좌를 일찍부터 준비하겠다.
- 끝으로고 싶은 말은.
= 총여학생회는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총여학생회장 선거에 단독후보한 이경원(철3·정)·이기양(인문2·부) 조

자갈밭에서 시작을 해 많은 어려움을 견
며내며 여기까지 왔다. 14대에서는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남아있는 자갈들을 모두
걷어내고 싶다. "열심히 하는 모습, 기대
해 주세요"

사랑과 사업의 동반자

LG텔레콤

正道경영·초우량LG

로마인의 劍(검)이 10인치 짧은 이유

검이 짧을수록 한발 앞서 나가 싸우라는 뜻입니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힘차게 도전하라는 뜻입니다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제국의 힘은 로마인의 검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적이 강할수록 검의 짧은 길이만큼 앞으로 나가 싸우는 용기 말합니다.
세계 최초 CDMA 기술 상용화에서부터 탐 설계·설치·운용상의 풍부한
경험이 뒷받침된 최고 수준의 통신서비스에 이르기까지 LG 019 PCS가
걸어온 길도 그랬습니다. 오직 맨몸으로
우리나라 통신기술의 황무지를 개척하겠다는
자세가 없었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좌절이 클수록 더욱 힘차게 부딪혔던
그런 경험이 있기에 019 PCS는 오늘의
젊음에게 동질감을 느낍니다. 경제가 어려운 만큼 점점 흐려지는
장래의 비전, 현실의 벽에 막혀 점점 멀어져가는 꿈들. 그러나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좌절과 맞대결하십시오. 좌절이야말로 젊음의 무공훈장.
지금 019 PCS가 젊은 개척자들에게 마음의 바수를 보냅니다.

직접 써보시고 비교 선택하십시오

LG 019 PCS는? •송소리까지 들릴만큼 음질이 깨끗합니다. •고속 주행중에도 끊김없이 또렷합니다. •고품질 무료 부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PCS폰의 모델과 색상이 다양합니다.

젊은 감성체절 -

LG 019 PCS

•가입문의: LG 019 PCS 고객센터 Tel: 080-019-7000, (02)3416-7000 •PC통신: GO LG019 •인터넷: http://www.lgtel.co.kr

달하나 천강에

인간은 태어나면서 단 하나라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 재능은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 키워지며, 20대에 발휘되는 자가 있는가 하면 50대에 발휘되는 자도 있으며, 평생 발휘를 못하고 인생을 마감하는 자도 있다. 재능은 누구라도 자신이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곳에 숨어있다.

재능이 없다고 느끼는 것은 본인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주위환경이 재능을 발휘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무시해 버리는 데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보통 때에는 아무런 재능도 발휘 못해 주위에서 무능한 인간이라고 취급당하는 회사원에겐 송년회나 술자리 등의 진행을 맡겨보면 놀라운 재능을 발휘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단지 문제는 그 재능이 송년회나 술자리에서만 발휘된다는 것이다. 그것을 어떻게든 회사 일이나 사회생활에서도 발휘될 수 있게끔 본인은 물론이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게만 된다면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는 사회인이라고 누구나 인정할 것이다.

· 개인이 갖고 있는 재능이라는 것은 그다지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단지 그것이 실

제로 발휘되고 있는지 아니면 잠자고 있는지 여 따라 그 사람의 인생에는 큰 차이가 나타나고 인생에서 희노애락을 누리는 것이다.

학생시절 축제 때나 모교지를 가게되면 눈에 띄는 학생이 하나 둘은 있다.

그런 학생은 이상하리만큼 십몇년이 흘렀는데도 기억에 남아 있다. 성적이 좋았던 학생은 이를조차도 기억하지 않는데 개성이 강한 학생은 작은 에피소드까지도 생생히 기억에 남아 있다.

무언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타입의 사람은 축제나 모교지의 진행도 훌륭히 해낼 수 있는 사람이다.

재능 살리기

최근에는 어떤 사회에서도 일 외에 다른 재능을 높이 평가하는 풍조이다. 그것은 폭넓은 재능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에게 재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재능을 발휘 못해서 출세도 못한 채 정년퇴직을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다. 이것은 회사도 손해이지만 가장 손해를 보는 것은 본인일 것이다.

사회나 학교생활에서 소외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 몸 속에서 잠자고 있는 재능을 깨워서 개발하고 발휘하여야만 한다.



김용기 문과대 일어영문학과 교수

책소개

화랑세기

89년 부산에서 처음 발견되어 97년 출판에 이르게 되었다.

신비스럽게 그치지 않는 역사라는 면지를 뒤집어 쓴 '화랑세기'가 대중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32명의 통일주들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담겨 있어 신라의 사회상 연구와 화랑 탐구에 중요한 자료로 꼽힌다.

출판사-장락 정가-8천8백원

'에로 영화 보기 ... 당당하게 보기'

등급외 전용관 설립 위해 에로 영화제 막 올려



색안경을 끼고 에로영화를 보는 사회에 반기를 든 '에로 영화제'가 지난 8일부터 뉴남대문극장에서 열리고 있다. '에로 영화 보기... 당당하게 보기'를 모토로 하는 에로 영화제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시도되는 놀라운 행사이다.

에로 영화제의 상영예정작은 모두 8편. 행사를 공동 주관한 '씨네 21'과 '뉴남대문극장'에서 엄선한 에로영화 8편을 매주 두편씩 그 주의 주제에 맞춰 한달동안 상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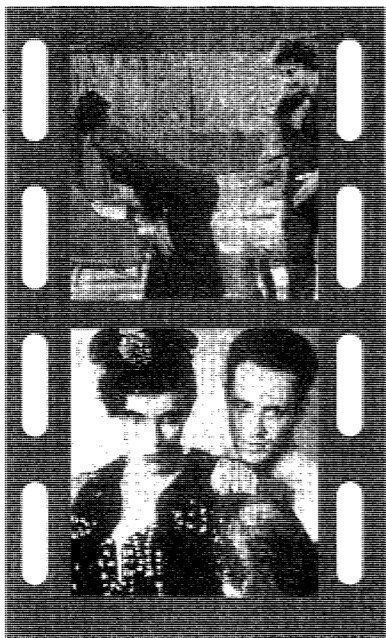
첫째주에는 에로티시즘과 정치를 주제로 '퍼블릭 우먼'과 '비엔나 호텔의 야간 배달부'가, 둘째주에는 '파리 프랑스' '하몽하몽'이 에로티시즘과 비정상성을 주제로 상영된다. 다음으로 에로티시즘과 포르노를 주제로 한 '올 레이디 두!' '8요일의 여자'가 셋째주에 에로티시즘과

고전이라는 주제로 '블로드 부인' '파리에서의 마지막 탱고'가 마지막주에 각각 상영될 예정이다.

상영예정작들은 안타깝게도 모두 공연윤리위원회의 '가위질'을 당한 작품. 이로 인해 당국의 이번 영화제에 대한 압력은 없었으나 관객들의 불 관리는 상실된 것이다.

에로 영화제의 부제는 '등급외 전용관 설립 허가 촉진을 위한 대한민국 최초의 에로영화제'이다. 비로 관객들의 불 관리를 찾아 주고, 또한 비주류 영화(제3세계영화, 컬트영화, 공포영화 등)들을 상영해 소수의 관객들도 즐길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영화제 기간 중 서명운동과 설문조사가 진행되며 내년에는 '공포영화 축제' '컬트영화 축제'도 치러질 예정이다.



남대문 그릇 도매 상가 4층에 위치한 극장은 의외로(?) 시설이 잘 되어 있다. 3백 20석의 관람석이 준비되어 있으며, 휴게공간과 오디오 시설도 타극장에 뒤지지 않는다.

'장'에서부터 '더블섹스'에 이르기까지 에로영화를 특화해 상영했던 뉴남대문극장은 '에로영화 상영관은 어두워질까'라고 걱정하는 네티즌이 '나'라는 고정관념을 깬 것이다.

이번 행사를 기획한 유성필름의 조원진 영화평론가는 "에로 영화는 관음증환자의 산물이 아니라 다양한 영화 장르중 하나일뿐"이라며 "에로영화를 건강하게 봐주기를 바란다"고 관객들에게 당부했다.

우리 모두 색안경을 벗고 '당당하게' 극장에 들어가 '웃웃이' 앉아서 작품을 감상하도록 하자. 적어도 에로영화제에서는 에로 영화를 흠쳐보지 않아도 된다.

김미경기자

마당극 '밥'을 보고

'함께 나누어 먹는 밥' 생명 나누는 인간사회 강조 풍자와 해학으로 사회문제 냉철히 비판



'밥'이 12년간 뜸을 들이고 '생명가치가 존중되는 새로운 사회를 열고 공동체문화의 씨앗을 온누리에 뿌리겠다'는 이상을 안고 극단 '길라잡이'에 의해 부활했다.

시인 김지하는 '밥'에서 생명사상을 기본으로 생태계문제, 멀티미디어 시대의 기술문제, 핵문제 등에 관한 성찰과 대안을 21세기를 준비하는 시민들에게 제시했다. 그러나 연출가 임진택씨는 창작관소리 대사로 가득한 마당극 '밥'에서 농업문제, 개인이기주의 문제, 정치권의 부도덕 문제 등을 날카로운 풍자와 결판된 해학으로 풀어간다.

5명의 배우는 풍물을 치며 마당에 등장한다. 신명난 사물놀이로 분위기는 한층 오르고 "똥이 밥이다"라는 관객의 함성과 함께 막이 오른다.

유기농 밥을 고집한다는 이 농민이 삶을 직관하기 위해 서울에 올라와 우여곡절 끝에 수세식 화장실에 들른다. 결국 '돌아갈 것이 돌지 않으면 세상이 팍팍해진다'라는 깨달음을 얻고 자신의 논으로 돌아온 농부는 똥을 누어 버를 살려낸다.

관객은 농부가 똥을 누는 장면에서 영감을 들뜨거리며 함께 힘을 주고 마당극에 동화돼 '공공' 신음도 내뿜는다. 우리 농촌과 농업이 맞고 있는 위기를 진단하고 그 대안을 제시한다는 무거운 주제도 있는 채 한바탕 웃음바다를 연출 한다.

둘째마당은 가마솥을 무대 중앙에 두고 펼쳐진다. 한술만큼 모사는데 쓰이는 것으로 알려진 유물을 놓고 각계 종교단체

들이 그 쓰임새를 주장하지만 순박한 마을주민들에 의해 밥을 지어먹는 가마솥으로 판명된다. 어두운 조망에서 관객들은 기성종교의 권위주의라는 암울함을 잃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배우들이 '한데 모여 밥을 먹습니다'고 외치자 웃음을 참지 못한다.

5번씩 웃을 갈아입은 배우는 관객들의 함찬 박수와 환호 속에서 다음 막을 준비한다.

'나는 밥이다'라고 주장하는 셋째마당은 감옥에서 벌어진 재판 놀이다. 5명의 배우는 노상강도, 588가사, 거리광상 이종마, 노동자, 행려 등 온갖 사회적 '잔발'들을 모두 보여준다. 인물 각각의 이야기에는 웃음과 쓰러진 아이를 동시에 배어있다.

이로써 관객은 우리사회의 하루인간들이 당하는 인권유린의 실상을 보고 비자금, 한보사태 등 97년 정국을 신랄하게 비웃는다.

'나는 네 밥이다'라고 공동체의식을 설파했던 노인이 울분에 싸여 엎드려다 다시 관객은 우물쭈물하며 나머지 4명이 노인의 등에서 하얀 천을 뽑아낸다. 공평한 길로 나누어 들고 서로에게 향한 인사를 나누는 5명의 모습에서 관객은 결국 인간이 생명을 함께 나누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관객들은 마당극의 더 많은 외출(콜롬비아 '국제 거리극 축제'와 '97경기·과천 열린 세계 마당극 큰잔치 초청작)을 통해 '인간사도 밥을 나누는 마음과 같이 공평공영해야 한다'는 근본원리를 설교하기를 바라며 극장을 나선다.

최진기자

카트리지 하나로 2400장이나 프린트 되니까 유지비용 적지, 또 가격도 정말 만만하지 ~ 학생이니까, 난 실속있는게 좋아!

카트리지 하나로 2400장까지 프린트한다!
실속파를 위한 컬러 프린터 **BJC-210SP**

- 초절약모드 사용시 카트리지 하나로 2400장까지 프린트
- 잉크량이 20% 늘어난 BC-03 카트리지 사용
- T 서초 판박이용 전사용지도 프린트
- 흑백 프린트시 720x360dpi의 고해상도
- 최저수준의 가격에 기능은 강화되고 크기는 초소형

우리는

CC

Canon Couple

프린터는 기본이고 스캐너까지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사진도 이미지데이터도 내 맘대로 표현한다! 생각도 행동도 젊은 나이에겐 창의력 있는 게 딱이거든!

프린터에 스캐너 기능까지 갖췄다!
창작파를 위한 컬러 프린터 **BJC-4300**

- 스캐너 카트리지(옵션)만 갈아끼우면 프린터가 스캐너로
- 명암까지 생생하게 출력하는 잉크방울 변조기술
- 더 진보된 포토 리얼리즘으로 출력물이 바로 사진
- 확대할때 이미지의 깨진 부분을 자동교정하는 이미지 오프타이저
- 특별한 날을 위한 특별한 출력 - 배너 프린트

■ 고객상담실: 일반전화 (02)562-9133
수신자 요금부담 090-987-8686

■ 천리안·하이텔·PC통신서비스: GO LCBJ

■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lottecanon.co.kr

■ 자동 FAX전송서비스: (02)563-7161

울산 02)3272-1992	인천 032)438-1992	부산 051)462-0003	포항 0562)81-1992	광주 062)572-6121
강남 02)3450-0713	경인 032)525-4702	경남 0551)89-1992	안동 0571)52-5363	전주 0652)224-2365
강북 02)3273-8497	수원 0331)251-1992	대구 053)763-0071	대전 042)255-1729	춘천 0361)261-8432
서울 02)3450-0766~7	안양 0343)58-9224	울산 0522)68-1990	청주 0431)65-3030	김포 0391)652-4321

LOTTE
Canon

롯데캐논

※LG IBM PC를 롯데캐논 매장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한국언론운동 어디쯤 왔나

1. 총론
2. 언론운동의 어제와 오늘
3. 민주언론의 발달과 전개
4. 현대적 언론운동의 한계와 대안

“언론은 인간의 눈이요, 귀요, 입이요, 삶의 외침이다”

정부·언론·시민 비뚤어진 삼각관계

정부, 언론자유·국민 알권리 보장해야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는 좀처럼 해답이 나오기 어려운 질문이다. 왜냐하면 언론의 자유는 정부와 언론 그리고 일반시민이라는 삼각관계에서 다루어져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살펴볼때 정치세력들은 언론의 통제를 제일의 과제로 설정하여 집권관리에 왔고, 언론은 이에 대항하여 최대의 자유를 보장 받으려 했다. 언론은 시민의 대변자라는 명분을 내세워 일반시민과의 연대를 통하여 정치세력에 대항하

는 이른바 정부 대 언론·시민이라는 대결의 구도로 끊임없이 발전과 좌절을 겪어왔다.

요즘들어서는 또 다시 시민의 권리를 앞세워 언론에 대한 감시를 통해 시민들의 권리를 찾고자한다. 따라서 지금의 모양새는 정부, 언론 그리고 시민이라는 3자 구도로 그 변화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언론학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박복산 교수는 언론을 “인간의 눈이요, 귀이요, 입이요, 삶의 외침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언론의 자유는 인간이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그 어느 누구의 간섭도 없이 밝히는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럼 이러한 언론의 자유가 한국 상황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언론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현실적 실체로 대리해 줄 수 있는 신문, 방송매체와 같은 수단을 통해 우리는 이를 이루어야 하는데 정치세력은 이러한 매체에 대한 통제를 가함으로써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려 한다.

우리나라의 언론은 박정권, 5공·6공의 탄압을 극복하면서 어느 정도 그 자유를 이룩했다고 하지만 아직도 그 관행에 있어서는 문제점이 많다. 정부출입처제도는 정부로부터 작성된 내용을 그대로 기사화할 수 밖에 없도록 한다. 즉 심층적 취재를 사전에 봉쇄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또한 특정 언론사에는 출입증을 교부하지 않음으로써 사전에 비판적 내용을 차단해 버린다. 일례로 몇달전 국방부에서는 ‘정부의 이익을 해한다’는 명분으로 한겨레에 출입증을 회수한 경우가 있다.

김현철씨 비리사건만 보아도 알 수 있다. 94년 한겨레에 의해 처음 폭로된 비리는 당시 20억원이라는 손해배상과 함께 정정보도를 할 것을 강요받았다. 사회에

대한 적극적 기여를 위해 온갖 난관을 무릅쓰고 워터게이트 사건을 파헤치고 미국 국방부 기밀문서를 폭로한 뉴욕타임스나 워싱턴 포스트같은 사명감에 가득찬 언론은 이방에서는 그 씨앗부터 철저히 짓밟히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김현철사건의 경우, 그 비리가 상당부분 밝혀졌다. 이 얼마나 재미있는 일인가.

지난 95년 IPI에서 총회에서 세계는 ‘한국은 언론자유국’임을 공인했다고 한다. 과연 무슨 판단 근거로 이런 결정을 했을까.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언론의 자유도 이룩되었다는데 특이적으로 동의했다고 하는데 경제의 발전이 언론의 자유와 무슨 연관성이 있는 것일까.

윤경수
중앙대학교 신문학과 석사과정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이웃나라 일본

‘문화의 다양성 추구’·‘민족 감정상 시기상조’ 팽팽히 맞서

민족 정체성 바탕, 외래 문화 선별력 길러야

슬램덩크, 드래곤볼 등의 만화부터 지부라, 사쿠라 등의 문구, 소니나 페나소닉 등의 가전제품에 이르기까지 일본 상품들은 한국인에게 그리 낯설지 않다. 그리고 ‘X-JAPAN’이라는 가수와 무라카미 하루키의 ‘상실의 시대’를 이야기 할 때 일본은 문화를 나누는 가까운 나라이다.

그러나 일본이 난데없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할 때나 한국의 독도집안시설에 대한 하시오로 수상의 망언을 들을 때, 월드컵 진출 예선전에서 일본과 처음 경기를 가질 때 한국인에게 일본은 아주 먼 적대국이다.

일본은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가까우면서도 먼 나라이다. 따라서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있는 현재 한국인들은 일본을 단순히 가까우면서도 먼 나라로 인식하던 수준에서 ‘일본의 문화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라는 현실적 문제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과거 일본문화 개방에 있어 무엇보다도 가장 큰 장애는 역사적인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한국에 대한 통치자적 우월한 입장을 보이는 일본에 대한 반감이었다. 아직 생존하고 있는 일본통치기를 겪었던 할아버지 세대들의 한 세기를 채지나지 않은 사무치는 적개심을 생각할 때 이러한 민족적 감정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한편 역사적 적대적은 일본을 퇴폐적이고 문란한 문화의 종주국으로 인식하게 하는데 한 몫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이러한 지배와 피지배의 논리는 신세대들에 의해 옛시대의 유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는 억압과 치욕의 역사를 실제 경험하지 못한 그 다음 세대들이라 할지라도 전세대의 아픔을 생생히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상상했는지 모르나 오늘의

대학생들에게 일본은 단순한 적대국으로 비추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본문화 개방에 대한 논란을 통해 타 결핵을 찾아가려는 노력이 부산하다.

아직 치유되지 않은 한국현대사의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음성화된 문화가 청소년들에게 끼칠 악영향을 우려할 때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주장은 과거에서 현재로 이어져 내려왔다.

그러나 이제는 이에 반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문화의 다양한 습득 부분에서 유독 일본문화 자체를 적대시할 때만 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문화적 뿐만 아니라 경제적 발전을 위해 일본의 전문화되고 고도화된 문화를 접수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일본문화에 대한 장벽을 걷어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시간이 더할수록 팽배해져 가고 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관찰 할 수 있는 것은 대다수 국민 정서는 역사적 감정을 내세우기보다는 경제적 손실을 생각하여 일본문화 개방을 세계화에 한 번을 거처야 할 홍역으로 인식하는 것과 그 동안 극히 소수 정부관료에 의해 평가되어 왔던 일본문화에 대한 전 문화의 전 부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마치 장남이 코끼리를 만지고 쿠나 코가 전부인양 떠돌아대는 것과 같은 오류에 빠질 수 있음을 염려하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인들이 일본문화의 개

방에 앞서 갖춰야 할 자세는 한국문화를 아등바등 가꾸는 것과 성장된 우리문화에 대한 자존심 및 반년 역사 속에서 이룩된 정체성을 간직하는 것이다. 일본이란 나라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정체성을 바탕으로 문화자체에 대한 선별력을 기르는 것이 세계화에 직면한 한국인의 자세일 것이다. 이로써 양성화된 통로를 통해 수입된 일본의 문화를 우리나라 문화와 비교분석하고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배척하는’ 이성적인 문화 유입의 형태를 갖출 수 있을 것이다.

최진기자



“일본문화 수용 자연스런 문화흐름 막지 말아야”

“복잡한 역사적 배경을 안고 있는 양국이지만 응원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막을 내렸다.” “한국에서 일본을 동반자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높아졌다”

지난 1일 서울에서 열린 월드컵예선 한·일 경기가 끝난 후의 반응들이다. 비록 일본측의 평가이지만, 이제 우리는 이만한 관련 태도를 극복없이 성숙한 의식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일본의 문화에 대한 규제를 강력히 해 왔다. 그러나 이런 조치 속에서도 들어올 것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다 들어왔다. 오히려 법적인 규제는 일반대중의 호기심을 자극시켰고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상업적 문화가 들어오게 하는데 기여(?)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런 것들을 일본 문화의 전체적 특성으로 생각하면 곤란하다.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즉, 일본문화에는 좋은 점도 많이 있는 것을 간파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어렸을 적 ‘은하철도 999’나 ‘켄더’라는 만화를 텔레비전에서 보고 동심을 키우곤 했다. 그것은 일본의 만화였음에도 말이다. 한편 광고에서 나오는 ‘이끼야 잘 살지요’라는 말은 한국인에게 일본인의 절약정신을 각인시키기도 했다.

일본도 여타 다른 문화처럼 장·단의 문화가 있음을 인식하자. 또한 한국문화 속의 미국문화나 중국문화처럼 일본 문화도 전래되는 외래 문화일 뿐이다. 유독 일본 문화만 나쁘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치게 세계화를 외치며 국수주의를 주장하는 우수풍스러운 모습만 남을 뿐이다.

일본문화수입 찬·반

일본이란 나라를 생각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선 적개심을 느끼게 된다. 그것을 단순한 피해의식에 쌓인 열등의식이라고 주장하는 신세대들도 있지만 우리의 역사를 뒤돌아 볼때 일제수난기는 감정이 아닌 실재했던 현실이다.

제 1세기도 지나지 않았다. 일제 때 억압적 통치를 받았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살아계신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일본의 저질문화를 무분별하게 수용하는 청소년층은 어떠한가, 일본 음악과 광고 TV를 포털해서 아무렇게도 상업화시키는 기성세대들은 어떠한가? 일본문화의 수용에 찬·반 입장을 가르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역사 앞에 부끄러움을 가져야 한다.

“역사청산 뒷전, 재미찾는 현대인 정체성 확립이 우선”

우리를 지켜내지 못한 우리의 문화는 많은 외국 문화들에 의해 침식당했고 이제는 ‘우리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우리것은 소중한 것이여’라고 광고 멘트만 따라하고 있다.

이제 일본문화의 수입개방은 또다른 우리문화축이기로 작용할 수 있다. 아직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한 한국문화는 음성 혹은 양상으로 들어오는 많은 외국 문화에 의해 이미 병들대로 병들었다. 주체적으로 자신의 문화를 발전시키기도 못하는 현대인에게 재미 혹은 오락위주의 선정적, 폭력적 일본문화를 보여 준다면 미래는 불보듯 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에게 일본이란 나라는 정치, 경제적으로 아직 멀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문화만 동화될 수 있다고 강조할 수 있겠는가. 지금은 흉내내기 보다는 민족 정체성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다.

문화부

우리것을 지켜내지 못한 우리의 문화는 많은 외국 문화들에 의해 침식당했고 이제는 ‘우리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우리것은 소중한 것이여’라고 광고 멘트만 따라하고 있다.

이제 일본문화의 수입개방은 또다른 우리문화축이기로 작용할 수 있다. 아직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한 한국문화는 음성 혹은 양상으로 들어오는 많은 외국 문화에 의해 이미 병들대로 병들었다. 주체적으로 자신의 문화를 발전시키기도 못하는 현대인에게 재미 혹은 오락위주의 선정적, 폭력적 일본문화를 보여 준다면 미래는 불보듯 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에게 일본이란 나라는 정치, 경제적으로 아직 멀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문화만 동화될 수 있다고 강조할 수 있겠는가. 지금은 흉내내기 보다는 민족 정체성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다.

짧은 소식

학교 안에서

열린강좌

‘반쪽 세상을 거부하자’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을 중요시 하는 오늘날의 청년세대에게 그 내면까지 볼 수 있는 안목을 심어 드립니다”겉으로 보여지는 현실만이 진실이 아님을 생각해 하는 강좌로 학생복지위원회와 생활협동조합에서 준비했다.

강사로는 민중가수 정태준씨와 우리문화 지킴이 김준호씨가 초청된다. 오늘(10일)부터 11일까지 늦은 5시 중강당에서.

제목과 사진전시회

무동력 대나무목인 ‘동아지중해호’와 사진들이 전시된다. 개교 1백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한 환경문화대탐험에서 사용된 이 제목은 5명의 탐험대원들과 함께 23일 동안 1천 2백 킬로미터를 항해했다.

예술극장 앞 교정과 로비에서 21일까지.

그리고... 그림전

“10년에 걸쳐 조금씩 바뀌는 모습이 변질이 아닌 변화임을 기원하며...”

미술동아리 그리고...그림에서는 제 11회 그리고...그림전을 마련한다. 정물화, 유화, 조각등 총 32점의 작품들이 학술문화회관 지하 1층 전시실에서 선보인다. 14일까지.

학교 밖에서

심우장



한때 재개발으로 철거의 위기를 맞았던 심우장이 99년 12월까지 휴게소, 주차장 진입로 등이 설치된 시민 휴식공간으로 재장비된다.

74년 서울시 기념물 7호로 지정됐던 이곳은 만해 홍윤근 선생이 55세 되던 해 세워, 해방 전해던 44년 6월 임직원 때까지 기거하던 곳이다. 성북구 성북동 222-1에 위치.

메아리

법의 잣대

▲루소는 말했다. ‘만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당시 사람들은 물론 이 말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지속될 지 모른다. 그러나 한 번 생각해 보자. 루소 시대의 법이 과연 만민에게 평등했는가. 물론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 힘을 갖는 이유는 ‘만민에게 평등한 법’은 매우 지켜지지 어려운

것이기에.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기 때문일 것이다. ▲문민환태자는 결국 석방되었다. ‘형사소송법 원칙상 불구속 재판이 타당하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고 검찰도 이를 인정해 항고하지 않았다. 이를 보는 국민의 반응은 한결같다. ‘그럴 줄 알았지’ 하긴. 은 나라를 때뻑떨게 수사 하고 구속시켰던 한보비리 주범들도 진장에 석방되었으니

환태자의 석방은 어찌 생각하면 늦은감이 없지도 않다. ▲이에 대해 목소리 한 번 크게 내지 않고 쉬쉬하며 넘어간 아담은 입단속한 공로도 없이 ‘양심수능’으로 뒤집힐(?) 뻔했다.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발경인자’와 ‘발경이’ 아닌자’로 구분하는 여담의 논리에 당해낼 재간이 없는 그들은 재빨리 말을 바꿔 고비를 넘겼다.

또한 법무부는 ‘대한민국에 양심수는 없다’고 밝혔으며 ‘발경이를 석방하라고 말하는 사람은 모두 발경이’로 간주하는 살벌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게 되었다. ▲환태자는 수십억의 세금을 내지 않아도 석방안에 나올 수 있고, 전직대통령은 광주 2천여명의 목숨을 앗아갔지만 구속된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사면설이 돈다. 그러나

우리선배·동료들은 조국을 사랑했다는 죄만으로 차가운 감옥에서 빼앗긴 불을 그리워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이 어떠한 잣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는 신당동 할머니도, 며느리도, 아무도 모른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더욱 간절히 ‘만민에게 평등한 법’을 원하고 있는 것이다. 김기영 편집장

독자들의 의견이 담긴 원고지 4~5매 분량의 글이나 사진, 시, 만화를 기다립니다.

TEL: 2603491-2 / (0561) 7702057-8 FAX: 2791270 PC ID: dgpress

소나기

학생회 선거



△다함께 표, 표, 표
△봉어뱀엔 봉어가 없지, 학생회도 학생이 없을까?
△학생회와 함께 하는 선거가 아닌 원랜쇼 선거
△학우들의 참여가 예전같지 않던데...
△더러워, 냄새가 나, 기존 정치관람객 썩은 것 같아
△너무 홍보부족이다
△하긴 하는데... 자료가 보이기는 한데... 사람은 어디갔누...
△학생선거...유세할 때 아주 불만하지, 아직도 마카레나가 판치나!
△선거때만 되면 왜 이리도 사람이 치사해 질까?
△우리 주위에는 치열하게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사랑합니다.
△확실한 목적의식을 갖고 후보에 나왔으면 합니다.
△유세 중 불참 앞에서 하세요.
△동약의 모든 선거운동원들 수고하셨습니다.
△학: 교양 생: 맥주 집에서 1차하고 회: 먹어서 2차하고 선: 술집에서 3차한 후 거: 리에서 남어졌다.
△흑색선전과 비방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속지 않습니다.
△올바른 학생회 선거는 우리의 권리를 위한 필수, 소중한 우리의 한 표로 올바른 학생회를 세워내자.
△선거권의 포기하는 자기 권리의 포기. 꼭! 선거합니다.
△아빠가요 총학생회장이 세계 중심이 될게요!
△투표하러 갔다가, 물만 먹고 오지요.
△선거와 한층은 따로 떼놓으면 안되나?
△플래카드 다는 분들 정말 한 수고 하셨습니다.
△공정한 선거, 깨끗한 선거, 돈안쓰는 선거 -동약광고협회의
△경후보와 부후보 정수로 보내자.
△투표 한 장 손에 들고 떠나야 하네!
△선거는 나만 할 수 있는 권리. 권리를 자기 몫입니다.
△총여선거가 있으니 총남선거도 만들어 봅시다.
△혹시 동약에도 줄서는 사람이 있는건 아닌지 모르겠네!

오늘의 글

황성식 (법86졸, 조흥은행 마포지점근무)

발전기금 매달 5만원씩 1천만원 약정 "노골적(?) 모교사랑 몸소 실천"

"언어 아시죠. 그 물고기는 매년 가을만 되면 자신이 태어났던 곳으로 돌아온다고 하지않습니까? 아마 저는 그 물고기가 보다 더 회귀본능이 강한 것 같아요"

언어를 예로 들며 자신의 모교사랑을 당당하게 말하는 황성식씨.

작년에 본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조흥은행 마포지점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지 1년을 넘긴 사회초년생이지만 일에 대한 자신감과 모교에 대한 열정

을 갖고 하루하루 즐겁게 살아간다.

"발전기금이요? 당연히 내야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약정을 하게 되었지요"라며 진절하게 말하는 모습에서 그가 바로 은행원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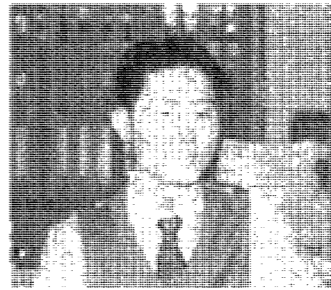
황성식씨는 동국발전기금으로 매달 5만원씩 모두 2백차례에 걸쳐 1천만원 을 기부하기로 한 동문이다.

"술 한번 안마시고 하는 일인데, 조금은 속스럽네요" 라고 말하는 그는

"동약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할 준비가 되었다"고 자신있게 소신을 밝힌다.

학창시절에 이미 실천을 했어야 할 일을 이제서야 하게 됐다는 그는 친구들에게 BC카드를 개설해 줄때도 동국대학교 장학카드로 해 줄 정도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지나칠 정도로 노골적(?)인 학교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얼마전 동약을 찾았을 때 "학교측의



동문에 대한 무성의한 모습에 실망하기도 했다"는 그는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동문들은 오늘도 동약의 발전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며 동약발전과 동문참여에 관한 학교의 좀 더 적극적인 배려를 당부(?)하기도 했다.

"모교의 소중함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부터 동약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고,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하면 더이상 바랄

것이 없겠지요"라고 후배들에게 당부하는 그의 모습에서 "우리에게는 이런 선배가 있다"며 자랑할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다.

"구체적이진 않지만 앞으로의 목표는 내자신 스스로가 '바로 이것' 라는 생각이 들 때까지 끝까지 노력하는 것이지요"라고 말하는 황성식씨.

모교와 영원히 함께 하는 그의 헌신적 모습을 기대해 본다.

유철주 기자

양서 한 권 통해 세상보는 시야 넓혀

"금강경"에 '법소유상 개시해방 약권 제상비상 죽연여래' 라는 시구가 있다.

무릇 모양 있는 모든 것은, 언젠가는 부서지고 마는 헛된 것이니, 그 모양이 영원하지 않은 이치를 알면, 부처의 세계를 보게 된다는 말이다. 영원히 살 것 처럼 쌓고 맺고 모으며, 탐착하는 우리들에게 그러한 삶이 되었음을 일깨우고, 허상에 끄달리지 않는 인생을 살게 하려는 금구의 말씀이다.

나이 들수록 새겨 보며, 내 욕심스런 사고들을 헹개 내는, 생불 같은 말씀이기도 하다. 진정 영원한 모습이 있을 리 없다. 지금 숨을 쉬고 있는 사람들 중, 백년 뒤 이 땅에 남아 노래 부를이 몇이나 될까?

눈가에 지는 세월의 흔적을 거울 속에 들여다보면서도, 나는 늙지 않을 거라고 꿈을 꾸는 우리! 그러나 분명 깨야 할 꿈인 것을... 늙고 병들어 죽어가는 모습을 바로보고 긍정할 수 있을 때, 우리 좀더 진실된 삶을 살다 가지 않을까? 슬한 아픔과 갈등, 사랑과 미움을 세월 넘어 보내면서 배운 게 있다면, 앞에 놓인 실존마저도 허상이요 한낱 꿈이라는 것! 그 사실을 철저하게 인정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길 때, 현실의 허상들마저도 사랑할 수 있는, 참된 가슴이 열리더라는 것! 현실 부정의 논리가 아니라 현실을 바로 봄으로, 무상하고 허망한 것들에 매달리지않고, 좀더 자유롭고 여유

있게 살아 가게 되는 것이 아닐는지...

그동안 나의 인생의 뒤안길에는 많은 다름과 욕심, 마음이 가득하 그 것에 길들여져 왔으며 앞으로는 그것에 계속 길들여지게될지도 모르겠다. 그간 읽은 불교관계 서적을 통해서 나는 비록 불자는 아니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의 의미를 조금은 이해하게 되었고 앞으로의 내 삶속에 여유로움이 부영되기를 바라는 작은 동요가 일었다. 그 동안의 나의 속 좁은 삶들이 새삼 부끄러워지며 더 넓은 시야로 여유로이 이 세상을 바라보고 싶다. 겨울의 문득으로 가거전 가을의 여유로움을 느껴보고 싶으신 분들께 불교서적은 좋은 안내자가 될 것이다.

정영화(사대대 신문방송학과)

선거 분위기 한창 소중한 한 표 행사해야

요즘 각 단대별로 선거가 한창이다. 단대 회장과 부회장을 선출하느라 온 학교가 떠들썩하고 선거운동이 하나의 흥미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거와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사람 람은 그 사람을 둘러싼 몇몇 주위 사람

들의 잔치로 끝나게 아닌가하는 아쉬움이 생긴다.

자신이 속해있는 단대를 이끌어갈 주역들을 선출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대한 관심이 저조하다. 과반수 투표율 채우지 못할까봐 각 단대별로 선거에 꼭 참여하라고 지나가는 학우들을 붙잡고 얘기하는 모습을 대할때마다 정말 이것이 대학이라는 지성의 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나 하나쯤" 하는 지나친 개인주의적 발상이 지금 우리 대학인의 의식을 망가뜨리고 있다. 자신의 권리조차 찾지 못하는 대학인이 어떻게 학교의 주인이라 할 수 있으며 나아가 고등교육을 이수한 지성인이라 할 수 있겠는가

학교가 바로서기 위해서는 각 단대가 바로서야 하며 각 단대가 바로서기 위해서는 거기에 속해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서야 한다. 바로 자신의 올바른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때 일어난 수 있는 일이다. 단대를 이끌어갈 임원을 선출하는 선거에 참가하는 일은 권리를 행사하는 가장 기본적인 일이 아닐수 없다.

지금 우리의 권리를 행사할 때이다. 직선 간부를 선출하는 작업은 각 단대별로 가장 큰 행사로 남아야 하며 모든 단대인이 참가하는 행사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주인의식의 회복이 절실히 필요하다.

박인성(성경대 정보산업학과)

대학 분위기 조성 참된 지성인의 몫

중간고사가 끝나는 동시에 북적되던 도서관이 요즘은 한산하기만하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누려야할 권리에 대해 몇가지 지적하고자 한다.

며칠전 원로관에서 본 자보의 내용을 처음 학교식당의 질적인 개선문제나 학생복지에 관한문제등 학내의 여러문제들을 설문조사한 내용을 보았다. 우리가 내는 등록금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언젠가부터 소홀히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방관만 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폭넓게 배울 수 있는 권리를 학생 스스로가 상실해 가고있는 것 같다. 도서관의 부적극함을 보아도 그렇다. 시험시기면 매뚜기조차

뛰기가 어려운 도서관이 시험기간이 끝나면 한산하기만 하다. 도서관실도 마찬가지다. 물론 대학종합평가제로 이전 보다는 나아졌으나 아직까지도 부족한 것은 여전하다.

마지막으로 대학문화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현 대학내에서 제대로 이뤄지는 대학문화가 몇 개나 있을까? 설령 있다하더라도 제대로 홍보가 된 것들은 너무나 없는 실정이다. 좀 더 다양한 대학문화가 있어야 한다. 이와 아울러 학생 주제들도 대학문화에 관심을 보여야 할 것이다. 어느 한 쪽만 잘 한다고 해서 대학문화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지성인이고 대학생이라면 몸소 배운 것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하고 거기에 맞는 최대한의 배움의 기회를 만끽해 보도록 하자. 우리 스스로가 관비참한 글레속에서 과감히 벗어나 이제는 진취적인 생각과 자부심으로 지적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용기를 갖는데 우리모두 동참했으면 한다.

박강규(성경대 관광경영학부)



동약광장

목격글
축하합니다
△경당의 도영이형 결혼 축하합니다.
△11월 9일 연호 생일, 11월 15일 동현 생일, 11월 22일 동준 생일 축하한다.
-경당인
△11월 9일 성인 오빠 생일 축하해요.
-18기 일동
△11월 10일 경진 귀뚜나 날, 우리 모두 생일 축하드립니다. -친구
△회계학부 97학번 황덕선 당시의 생일을 친심으로 축하합니다. 좀더 성숙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길 바랍니다.
-당신을 사랑했던 남자
△진택 오빠, 생일 무지무지 축하해요.
-이쁜이
△현중아, 결혼 축하해.
-국교과 97학번 일동
△사랑하는 친구 선영, 사랑하는 애인 진영의 생일을 많이많이 축하해 주세요.
△승모야, 너의 생일을 축하한다.
-행정93일동
△중환이형, 영삼이형 당상을

축하드립니다.
△지영씨 11월 13일 당신이 태어난 날을 진심으로 축하해요! -383171004
△11월 15일 이해정씨가 시집갑니다.
우리 모두 축하를.
△11월 15일 진호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겨울을 위한 밤에 참여한 모든 이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정외과 모의국회 열심히 잘 했어요.
△홍·연 일일호프 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중선위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고 앞으로도...
그리고...
△인문학부 수영아, 정혁아, 진호, 한민, 기택, 형석이 자랑스럽고 고마워. 끝까지 그리고 내일까지 계속 수고하자.
△홍·연의 쓰레기 박주형 공익 소집! △신상과 학술제는 반드시 성황리에 마칠 것입니다.
△성공적인 광고제를 기원합니다. -상
△김종배 교수님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식물지원학과생 일동

△노공주님, 열심히 하세요.
△11월 11일은 2차 유세가 있을 진심으로 축하해요! -383171004
△11월 15일 이해정씨가 시집갑니다.
△이제 3번 남았다. 유종의 미를 거뒀어 보자.

온양남

축하합니다
△스스로 졸업을 자축한다.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90몇진 자랑
△국제관계학과 제 2회 학술제 아크로폴리스 마니마니 축하해 주시고, 관심보여 주세요. 그리고, 집행부와 동기를 -후배들 열심히 도와주세요 정말 고맙다. -곰
△오르네 공헌 축하해요. -전선3 일동
△승철이형, 28번째 생신 축하해요.
-귀여운 한
△사랑하는 도환오빠의 28번째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사랑해요 오빠!
-철학과 여학생회
△아직 좀 남았지만 동국음악회 34회 발표회를 축하합니다. -국·경 Fe
△불꽃 17대회장 정영식군과 부회장

조은희양이 된 걸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18기 일동
Ps : 현상이 실망하지만, 우리가 있잖아!
△11월 5일은 민족국가 95학번 백경준 선배님의 생일입니다. 축하해 주십시오.
△글로벌화대학내 풍물패 니르바나가 1회 정기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모화공주

수고하셨습니다

△자주의 깃발을 당당히 내리꽂기위해 고생한 인문대 선거운동원들 전부다 고생했수 -통일의 꽃, 총대표
△강화와 혁신을 위한 합찬 불꽃, 11대 자주 청년 법정대 학생회를 함께 건설한 7백 법정대학우와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부회장 당선자
△국사를 사랑하는 모든분들 제 16대 부터하시느라 고생많으셨습니다. -광
△오르네 수고했어요 사랑합니다.
-육군영장 병오기(휴학생)
△헌의학과 학우여러분,상경투쟁 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교미사학과 학술제 다음주에요 모두들 열심히, 재미있게 합시다. -97김

위해 노력하신 모든 일꾼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H
△술메리아 Family 11월 15일 열심히들 -명
△남들이 정기간 축하합니다. 다함께 더욱 열심히 합시다. -95경매
△자주학원 건설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신 인대 -법대 학우님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내년 사업 열심히 합시다.
-별처럼 빛나는 정책실장
△사북 학술제 멋지게 끝내봅시다. 사·북 파이팅! -기획부장
△제 6회 마음소리 수요발표회가 한창 준비중입니다. 다함께 동창을 -광
△짜리몽땅 CLUB(은주,진희,미현) 파이팅! -H·S·M
△고교미사학과 학술제 다음주에요 모두들 열심히, 재미있게 합시다. -97김
알립니다
△임팩트 마지막 정기총회 합니다. 회비는 민원, 민원들고 11월 19일 A 211로 모두 모입니다. -3기 공주
△법학과 학술제 합니다. '무료법률 상담'을 하니 학우 여러분 많이 이용하세요. -미인

다량관 학생·문화관 그림 식당 차림표

월	생선까스(1300)고구마볶음(1300) 제육김치조림(1500)
화	해물담뱃(1500) 어묵볶음(1200) 카레라이스(1500)
수	간짜장밥(1300) 참치찌개(1200) 콩비지찌개(1500)
목	떡갈비찜(1500) 마파탕(1200) 생선까스(1500)
금	소고기부추잡(1300)불고기감튀(1300) 참치아채볶음(1500)

(단위:원)

동국관 교직원·학생식당 차림표

월	알탕(3000) 카레라이스(2800) 제육김치볶음(1300) 어묵볶음(1200)
화	배해장국(3000) 황수육볶음(3200) 갈비탕(1500) 새우볶음(1300)
수	토란국(3000) 장어구이(3500) 비빔밥(1200) 불모듬찌개(1200)
목	우렁이원장찌개(2800) 튀김버(3400) 오징어탕수육(1300) 돈육찌개(1200)
금	김치전골(2800) 튀김정식(3200) 콩나물부추잡(1200) 시금치국(1300)

(단위:원)